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환경교육 지원사업-환경교육 전문가양성 지원 결과보고서]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학교

- 자립형 생태마을 운영을 위한 주민리더교육 -

2007년 1월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목 차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의의	1
4. 사업개요	1
5. 참가자명단	3
6. 사업내용	6
7. 예산사용 내역서	57
8. 종합평가	59
9. 강의 수료자들의 추후 활동계획	76
10. 기타제출자료	77

1. 사업명

자립형 생태마을 운영을 위한 주민 리더 교육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학교

2. 사업목적

- 마을공동체를 살려나갈 지역 마을의 리더 30명을 2006년 제1기로 배출한다.
- 농산어촌간의, 도시와 지역간의 네트워크의 토대를 마련한다.
- 1단체 1마을로 10 마을 이상이 결연을 맺게 한다.
- 주민 자립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을 모색한다.
- 마을의 공동체성 복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살리기 운동의 기반을 마련한다.

3. 사업의의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지만 외부의 역량 투입이 아닌, 지역 주민의 자치와 자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고 주민 자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지역리더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정부의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마을을 생태적으로 가꿔가야 하는 부분과 공동체성이 미약하며 마을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직화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학교’의 지역 공동체 살리기, 생태마을 가꾸기, 지역 주민 교육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자립하는 생태공동체 마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4. 사업개요

1) 교육일시 및 장소

- 1차: 7월 19일(수) - 21일(금),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
- 2차: 9월 13일(수) - 15일(금),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생태마을
- 3차: 11월 15일(수) - 17일(금),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산촌마을
‘명달리 숲속학교’

2) 교육대상

-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예정인 농산어촌의 지역 리더
- 지역 리더 교육을 받았지만 주민 조직화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실행력을 필요로 하는 농산어촌의 지역 리더

3) 모집인원

- 30명
- 수요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리더에게 우선권 부여

4) 참가비

- 무료, 교육장소까지 오는 비용은 참가자 본인이 부담

5. 참가자명단(직업 및 연락처 기재)

1) 1차 교육 참가자

No.	이름	하는 일	사는 곳	연락처
농산촌 마을 거주자 (9)				
1	김낙진	마을의 영농조합 법인 이사	경기도 서종면 명달리	
2	김태만	강화매화마을 위원	인천시 강화군 길생면	
3	서경훈	주민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	
4	양성욱	강화매화마을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5	이문영	이장	경남 함양군 마천면	
6	이재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위원장	경북 영덕군 남정면	
7	임종수	강화매화마을 군락지 실관리인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8	조상곤	마을 주민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9	홍수진	마을 사무장	전남 곡성군 죽곡면	
귀농 준비자 (3)				
10	김용진	귀농 예정자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	양동진	귀농예정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2	조준래	목사	충북 옥천군 동이면	
마을문화조사단 (10)				
13	김창환	마을조사단	전북 남원시 산내면	
14	김하나	마을조사단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15	김하늬	마을조사단(제천)	충북 제천시 백운면	
16	박승억	마을조사단(제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7	박재경	마을조사단(제천))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18	신인경	마을조사단(제천)	충북 제천시 백운면	
19	원미란	마을조사단(제천)	충북 제천시 남천동	
20	윤민상	마을조사단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21	정병귀	마을조사단	전북 진안군 백운면	
22	한천수	마을조사단	전북 전주시 평화2동	
기타 (7)				
23	서정호	한살림 생산자모임 실무자	충남 아산시 음봉면	
24	오빛나	강화매화마을 위원회 간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5	이석엽	포항 생명의 숲 편집장	경북 포항시 죽도2동	
26	이영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7	정희철	중학교교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28	지완선	한살림 생산자 모임 실무자	충남 아산시 영인면	
29	서규제	바른선거실천 사무국장	경북 포항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5인	3일째 참여	

2) 2차 교육 참가자

No.	이름	하는 일	사는 곳	연락처
농산촌 마을 거주자 (14)				
1	김낙진	마을주민	경기도 서종면 명달리	
2	남기순	마을 주민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3	박광호	마을 위원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4	서규제		경북 포항시	
5	서동오	마을 지도자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6	서장완	마을 주민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7	신병윤	마을 주민	경북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8	유윤식	마을 주민,교사	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9	이만석	마을 주민(농업)	경북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10	이석엽	식품유통업	경북 포항시 죽도2동	
11	이재원	포항생명의숲	경북 영덕군 남정면	
12	조수창	통장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13	최대운	마을 주민(농업)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14	최성호	충북 한살림(농업)	충북 음성군 대소면	
귀농 준비자 (1)				
15	양동진	귀농예정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기타 (5)				
16	나지아	광주전남녹색연합 간사	광주시 남구 주월1동	
17	박필순	광주전남녹색연합 간사	광주 북구 삼각동	
18	선우영	생명의숲국민운동 간사	서울	
19	홍순영	생명의숲국민운동 간사	서울	
20	최석기	한국임산버섯협회 회장	경기도 분당	

3) 3차 교육 참가자

No.	이름	하는 일	사는 곳	연락처
농산촌 마을 거주자 (11)				
1	김낙진	마을 주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2	오석배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2리	
3	유명현	명달리 영농조합법인 총무이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4	유윤식	마을 주민, 교사	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5	박동진	마을 이장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6	김은규	마을 총무 (건강장수마을 총무)	전남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7	이창순	마을 주민	경북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	
8	이호식	마을 주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9	신금철	위원장	경기도 양평군 연수리 보릿고개마을	
10	이헌기	위원장	경기도 양평군 봉상리 알찬뜰마을	
11	홍웅기	위원장	경기도 양평군 동오리 생태건강마을	
귀농 준비자 (2)				
12	안혜경	양동진님 사모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3	양동진	귀농예정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기타 (6)				
14	허동영	농업컨설팅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5	박재호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경기도 양평	
16	고영민	(사)생명의숲	서울	
17	신혜영	(사)생명의숲	서울	
18	원미현	(사)생명의숲	서울	
19	최은정	(사)생명의숲	서울	

6. 사업내용

◎ 1차 교육

가. 강좌일시

2006년 7월 19일~21일(수~금)

나. 강좌장소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인드라마지리산교육원)

다. 참석인원

34명

라. 강사이름 및 강사 약력

프 로 그 램 명	강사 · 안내자 / 소속
[여는마당] 마음열기	박현옥 / 산내면 귀농자
실상사 및 마을 둘러보기	마을 주민 및 안내자
실상사 및 인드라마 공동체 운영사례	이정호 / 인드라마생협 상무이사
[강연1] 공동체 복원을 위한 생명운동	도법 스님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강연2] 한생명 운동을 통한 주민공동체 사업	최석민 / 한생명 운영위원장
[강연3] 생명농업을 통한 농촌 살리기	이향천 / 지리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놀 이] 마을에서 하는 문화·공동체 놀이	김창환 / 한생명
[강연4] 농촌의 현황과 농촌 살리기 방향	임경수 / (주)이장 대표

마.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생명과 농업, 농촌 상생의 길찾기 - “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시 간	19일	20일	21일
08:00 - 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 - 10:00		[강연1] 공동체 복원을 위한 생명운동	[강연4] 농촌의 현황과 농촌 살리기 방향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접수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 14:00	[여는 마당] 오리엔테이션 마음 열기	[강연2] 한생명 운동을 통한 주민 공동체 사업	
14:00 - 15:00		휴식	
15:00 - 16:00	실상사, 마을 둘러보기 * 실상사 * 실상사작은학교 * 한생명 * 지리산교육원 * 실상사농장	[강연3] 생명농업을 통한 농촌 살리기	
16:00 - 17:00		[놀이] 마을에서 하는 문화·공동체 놀이	
17:00 - 18:00			
18:00 - 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 - 20:00	실상사 및 인드라마 공동체 운영사례	생각 나누기-3	
20:00 - 21:00			
21:00 - 22:00	마음 나누기-1		
22:00 - 23:00	취침	취침	

- [여는 마당] 마음 열기

일종의 아이스브레이킹(Icebreaking)의 시간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 간에 어색한 자리를 편안하게 풀어감으로써 3일동안 진행될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 실상사 및 마을 둘러보기

실상사와 그 마을 일대를 둘러보는 것으로 마을 탐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주민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마을 전반의 분위기를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실상사 및 인드라마 공동체 운영사례
 - 실상사를 중심으로 (사)한생명, 불교귀농학교, 실상사 작은학교, 지리산 생명문화교육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의 공동체 조성 과정과 운영사례를 공유한다.
 - 세부 주제별로 현장 설명과 안내를 들으면서 마을의 공동체적인 요소들을 배울 수 있다.
- [강연1] 공동체 복원을 위한 생명운동
 - 마을 공동체 복원은 생태적인 자연과 생태적 사고에 바탕한 주체적인 주민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생태적인 삶으로의 근간인 생명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명운동의 주체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강연2] 한생명 운동을 통한 주민 공동체 사업
 - 한생명은 실상사에 있는 마을의 공동체 터전을 가꾸고 도농교류를 위한 단체 ([www. indramang.org / hanlife /](http://www.indramang.org/hanlife/)) 로 사회문화교육, 산내여성농업인센터, 지역발전센터(준), 대안의료체계 형성을 위한 사업, 교육·문화사업, 농촌도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생명 운동을 통한 마을 공동체 운동을 배운다.
 - ㄱ. 사회문화교육 : 귀농전문학교, 생명문화학교, 생명살림강좌
 - ㄴ. 산내여성농업인센터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실, 어린이스스로배움터, 산내 어린이 보육원, 주민건강사랑방, 생활·문화·교양강좌, 여성 생산자 조합결성
 - ㄷ. 지역발전센터(준) : 환경농업지역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 생태마을 만들기, 지역발전·화합 포럼 추진
 - ㄹ. 대안의료체계 형성을 위한 사업
 - ㅁ. 교육 · 문화사업
- [강연3] 생명농업을 통한 농촌 살리기
 - 실상사는 귀농인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농업 관련하여 귀농인을 위한 귀농전문교육과 지역의 환경 농업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생명

농업을 통하여 땅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 것을 배운다.

- 생명농업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 마을에서 하는 문화·공동체 놀이
 - 마을에서 행해지는 문화와 공동체 놀이를 통해서 마을 주민의 참여의 모습을 보며 마을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와 공동체 놀이를 체험한다.
 - 실상사 작은학교는 실상사에 위치한 대안교육 학교(www.jakeun.org)로 실상사 작은학교의 학생들이 놀이를 직접 준비한다.
- [강연4] 농촌의 현황과 농촌 살리기 방향
 - 농촌과 지역의 사회변화의 모습을 이해하고 농촌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풀어 나갈 방법을 모색한다.

바. 강의원본

- 자료집과 같으며 기조 강연(도법스님의 ‘공동체 복원을 위한 생명운동’)의 녹취를 첨부함.

‘공동체 복원을 위한 생명운동’

도법스님

몇 분 정도 이야기 하면 되나요? 처음부터 이야기 같이 합시다.

재미있으세요? 네~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깐 아주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그러던데..

지금 여기 말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살아보니깐 어떻든가요? 전망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분들이 많죠? 원래 농촌에 있었던 분들보다? 반반정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실분 안계세요? 원래 계셨던 분이던지...아니면 뭐 도시에 살다가 돌아가셨던 분이던지... 싹수가 보인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2년 반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물음표를 짓게 합니다. 문명 사회라는게,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명 사회라는게 결국은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을 찾아서 즐기치게 달려오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라는게 그게 쉽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게 과연 쉽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잊게 만드는 게 현재의 상황인거 같아요.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살았잖아요. 농촌 사회에서 도시사회로, 그게 희망이라고.. 거기에 가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꺼라고...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도시사회고 산업 사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도시사회가 이루어지고 산업사회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 정보화 사회라든지 이젠 또 세계화 사회라든지 과학 기술 혁명 사회라든지..이런 기술 새로운 이름을 갖고 또다시 희망을 이야기 하고 꿈을 이야기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계산을 하자면 2만불 시대죠. 1만불시대가 희망인줄 알았는데, 거기가 우리의 꿈이 실현이 실현되는 지점인줄 알았는데. 우리의 희망이 실현되는 줄 알았는데 1만불의 시대가 와도 이게 거기 이제 실현이 될 우리의 꿈, 실현이 될 우리의 희망이 결국은 잡히지 않으니깐 이제 2만불 시대를 또 향해서 가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또 하나의 흐름으로 오늘 이 자리의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도시 사회가 아니다. 자본의 가치가 지배한 삶이 이게 인생살인가? 제대로 된 거 아니다. 그러니 이제 또 산촌으로 가자. 농촌으로 가자 소박하게 살자. 이게 오늘 현장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짚어 보면 일찍 우리는 농경사회, 농촌사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자연생태적으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어쩌면 요즘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생태 자연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 마을의 공동체 삶이었죠.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뭐 거의 자급자족의 삶. 그리

고 우리 집도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집도 짓고, 당시 마을에 집짓는 일은 지금처럼 뭐 특별한 전문가가 없었잖아요. 주민들이 같이해 도와서 마을의 집을 짓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요새 이야기 하고 있는 뭐,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뭐 산촌 마을이라 하든지, 대안이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새로운 삶, 대안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삶이 사실은 농촌사회에 농경사회, 마을 공동체의 삶이었던 말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버리라고 해서 버린 건 아니죠? 우리 스스로 버린 거지. 왜냐 거기엔 우리의 꿈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거기에서 꽃 피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것 말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버리고 만들어 낸 것이 이 산업사회고 도시사회고 정보화사회인 것이죠. 2만불 시대, 3만불 시대 그런데 거기에 가면 거기에 가보니깐 이게 뭔가 또 안보여, 안 잡혀 이제 다시 산촌으로 가자, 마을 공동체를, 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쌓아온 문명사회를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짚어보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 물음을 묻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 일까? 우리가 대안이라고 이야기 하는 자연생태환경이 건강하게 살아있고 또 마을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 졌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꿈꾸었던 희망했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꿈이 실현되지 않았단 말이야. 만약 거기에서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그걸 버리고 우리가 산업사회로 가자, 도시사회로 가자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깐 꿈이 이뤄지지 않으니깐 우리의 꿈을 찾아서 도시로 우리의 꿈을 찾아서 산업사회로 정보화 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사회를 만들어 놓고 봐도~ 도시사회를 만들어 놓고 봐도 꿈이 없어. 희망이 없어 안 잡혀.. 21세기 정보화, 만불시대 2만불 시대를 해도 여전히 우리의 꿈과 희망은 잡히지 않아.

이제 좀 사실, 냉정하게 짚어보면 현실이란 말이지. 이게 현실이라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문이 들겠습니까? 어떤 의문이 들것 같아요? 하긴 정확히 우리가 꿈꾸는 꿈은 있는 걸까? 우리가 희망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으면 관념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현실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난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진정한 우리의 꿈은 어디 있는걸까? 정말로 없는 것일까요? 오직 실현될 수 없는 이뤄질 수 없는, 실재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서 쫓고 있는 것일까? 만약 이뤄질 수 없는 그런 환상이 아니고 이루어 질 수 있는 얘기라면 도대체 이 꿈은 어디에서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이뤄지는가? 이것은 도시로 가냐? 농촌으로 되돌아 가냐 이것이 그 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결론이 나와요. 자연은 생태적이고 또 공동체 적이고 삶은, 삶이 주류 일 때, 그런 삶이 주류일 때도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없었던 거죠. 거기서 우리의 꿈이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거 버리면 이제 도시사회로 산업사회로 가는 거죠. 그런데 도시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시대를 가도 역시 우리의 꿈은 보이지 않아. 우리의 희망은 잡히지가 않아. 그러니 이제 다시 농촌으로 가자 이건데 이건 도시로 가도 희망

이 없고, 농촌으로 가도 희망이 없다는 결론이죠. 그러죠?

그럼 도대체가 우리가 꿈꾸는 꿈은 실현될 수 없는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런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농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디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또 다른 어디엔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하게 되죠. 난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물음에 아주 치열해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해, 그 물음에.. 그데 그 물음에 치열하지 않아서 문제인거지. 산업사회 안 되니까 정보화사회로 가자. 이게 이제 희망이다. 도시사회 산업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보니까 이거 못 살겠다. 다시 농촌으로 가야겠다. 이렇게만 가고 있다는 말이죠. 문제의 핵심이 뭐인지, 문제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치열하게 묻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개인도 역사도 그야말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없으니까 저기서 있을 꺼다 하고 가고.. 저기 가서도 없을 것 같으니까 한쪽은 더 저쪽으로 가보자 그러고, 한쪽을 뒤돌아 가고..

저는요, 불경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뭐 불교와 같이 40년을 살아온 셈인데 오랫동안 부처님 말씀이 ‘야, 인생은 굉장한 거야, 대단한 거야. 불교공부 잘하고 수행 잘하면 이거 뭐 그야 말로, 꿈같은 인생이고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으로 불교를 이해했어요. 그걸 쫓아서 그야말로 골몰하기도 했고, 그런데 요즘 와서 다시 살펴보니 부처님 한 얘기가 그런 게 아니고 ‘야, 인생이 별거 없어야, 착각하지마! 꿈 깨!!’ 이 얘길 하고 있는 게 부처님 말씀이더라고.. ‘니그들이 별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야. 그런 인생 존재 하지 않아. 니그들이 오색빛 찬란한 무지개꿈을 꾸는것! 그런거 다 환상에 불과해. 착각하지마 꿈깨!!’ 이 얘기 하고 있는 게 경전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엔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문제 제기한 부분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같은 굉장히 맥락이 같은 맥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깨 착각하지마! 우리가 꿈을 깨고 착각에서 깨어나면 인생은 흥가분해지는 거예요. 귀농이나 아니면 도시의 삶이나 이걸 일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착각을 어떻게 하는가?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것 그러니깐 사람들은 잘 꿈을 꾸라고 하는데 불교는 꿈 깨라고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은 꿈꾸라는게 아니고 꿈 깨! 라는 거예요. 이게 경전입니다 그것은 입장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야 꿈깨라, 너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 요즘 부처님 경전을 읽다 보면, 그전에는 꿈을 꾸게 만드는 환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불교였는데, 지금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선하면 막 뭐같은게 생긴다 그러고.. 도 닦으면 뭐 오색빛찬란한 세상이 펼쳐진다고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것이 불교다. 그런 걸 이야기 했던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요즘 다시 보는데 그게 아니고 꿈깨. 꿈깨!! 오색빛 찬란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 꿈깨! 정신차려. 정신차려 이 이야길 하고 있다는 걸 새롭게

느낍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사실 여기에서 뭐 하는지 잘 모르고요~ 인드라마에서 뭐한다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 교재 19쪽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인드라의 세계관과 삶의 철학.. 결국은 되씹어 보는 왜 꿈을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밤낮없이 달려오고 진땀 흘려 노력했는데 왜 도대체가 꿈이 잡히지 않는 걸까? 왜 그럴까? 왜 이 끝없는 모순과 혼란과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일까? 그 원인이 뭘까? 결국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인생을 모르고 산다. 모르고 산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너를 모른다. 우리 이런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하도 많이들은 이야기 이고..물론 싸움판에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생살이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자기 자신도 모른다. 첫째.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제가 지금 지역공동체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이런 저런 경험을 해봐도 역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되면 상대를 모른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상대를 모르고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마치 봉사가 코끼리를 다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봉사가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봉사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코끼리를 알 수가 없고 다 할 수가 없죠. 여기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데 봉사 열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코끼리가 몇 마리 만들어 지는 겁니까? 열 마리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싸움 박질 하는 거예요 계속.. .눈 뜬 사람이 봉사가 아닌 눈 뜬 사람이, 열사람이 코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한 마리가 되는거죠. 그러니 싸움 일이 없죠. 그러니 자기를 모르고 상대를 모르고 사는 것은 마치 봉사들이 코끼리를 갖고 싸우는 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죠.

단추 꿰는 이야기를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다음 단추를 막 끼는 경우예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로.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도시 사회에서 농촌사회로.. 첫 단추를 잘못 낀 상태에서 계속 끼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많이 끼면 많이 낄수록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명사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문명사회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야.이렇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돼’ 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성자, 현자 이런 분들이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성자라고 하는 분들 현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야 이 길이 아니야 그길로 가면 안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해본 것 우리가 산업사회 안 해보고 도시사회 안 해보고 1만불 시대도 안살아보고 안 해본 것을 향해서 막 그러면 될 거라고 달려왔는데, 이제 1만불 사회도 살아보고 도시 사회도 살아보고 산업 사회도 살아보고 하니깐 이게 또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 아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물론 결론이 옛날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뤄진다는것죠. 이렇게 끝 없는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자기 모순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 들여다보면, 정체성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무지, 혼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됨.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정체성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라고 할까? 정체성의 상실, 정체성의 왜곡, 정체성의 혼란 정체성의 망각.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거듭 거듭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 두 번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한번 이 정체성에 대해 얘기를 해봅시다. 나를 알기 위한 일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인간 자신의 자신 안에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연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정체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연이 없는 인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요즘 우리가 뭐 자연생태에 대해 가치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연이 내 정체성을 성립시켜주는 데 절대적 조건이고 절대적 가치라는 인식을 과연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론과 지식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죠. 연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자연을 무시하고 살면 병들고 죽고 못 사는게 아니라 애초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은 존재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자연을 오염시키고 병들게하고 못산다고 생각하고 있지 인간 자체로는 살 수 없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이런것들 이에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하다는 것. 우리 지멋대로야, 자연이 없어도 우리가 살수 있는데..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살수가 있는데... 다만 자연을 함부로 하니깐, 이제 병도 생기고 위험상태도 이르고 그런다. 그러니깐 자꾸 자연과 잘해보자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훨씬 더 근원적인 눈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연이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아마 절대 삶의 태도는 달라지고 자연에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절대로.. 자연이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엄연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너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없는 인간, 자연이 없는 나.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자연이 없는 나, 인간. 자연이 없는 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착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의 착각이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무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게 첫째 착각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야기 하면 다 아실분들 이니까 이해하긴 편하리라 봅니다. 너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상대 아납니까. 상대. 그대상이 자연일수도 있고 사람일수도 있고 이웃일수도 있고 부모일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 없이도 존재할 수 있겠는가? 크게는 자연, 가깝게는 사회, 이웃, 부모 뭐 구체적으로 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흙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숲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너 없이 내가 존재할수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흠이에요. 너 없이도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착각.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나라고 하는 것은 너라고 하는 대상에 의지해서야만 존재할 수 있지, 너라는 대상이 없이 내 스스로 독자적으로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60억 인구에서 예외일수 없습니다. 60억 인구. 어느 누구도 너 없는 나란 존재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체성에 대한 진실이죠. 너 없는 나란 존재할 수 없다. 존재 하지 않는다. 오직 너에 의해서만 나는 존재할 수 있고. 너 없는 나는 존재 하지 않는다.

이제 자료에 보면 19쪽에 인드라마의 세계관 삶의 철학이다. 해갓고 제목을 붙이고 원리1. 본래의 길, 생명살림의 길인 인드라마 세계관. 본래의 길은 말은 이견 과거 현재 미래, 보편성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하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성의 길, 본래의 길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보편성, 과거 현재 미래, 빈부귀천 남녀노소, 공간적으로는 무아, 공간적으로 무아 어디에나 어느 때나 누구에나 적용되어지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말을 본래의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드라마 이란 말은 그물이란 말입니다. 하늘나라로 제천 인드라는, 망은 그물. 하늘나라에 제석천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있는 구슬그물. 이걸 인드라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세상은 그물의 그물코처럼 이루어져있다 이말이에요. 하나의 그물을 이루는데, 거기에는 무수한 그물코들이 있죠. 그 그물코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된 것은 없죠. 참 연결되어서 그물을 이룬다. 나라는 사회의 존재도 무수한 그물코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물이라는 그물코가 있고, 흙이라는 그물코가 있고, 태양이라는 그물코가 있고, 달이라는 그물코가 있고, 바람이라는 그물코가 있고, 다람쥐라는 그물코가 있고, 돼지라는 그물코가 있고, 부모라는 그물코가 있고, 친구라는 그물코가 있고, 온통 나,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의 그물코들과의 관계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시간, 공간, 유형, 무형, 내면, 외면, 인간, 자연 어쨌든 뭐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 설명이 되든 온 우주가 총체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관계 맺어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에 그물코의 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 나라고 하는 그물코가 있고, 너라는 그물코가 있습니다. 나라는 그물코가 있고, 자연이라는 그물코가 있죠. 이 그물코가 단절되

면, 분리되면 어떻습니까? 분리되면, 나라는 그물코가 너라는 그물코가 있는데, 우리 사고 방식대로 한다면, 너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너 없는 것이 나한테는 더 유익하겠어. 너 없애고 나만 살겠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극단적인 경쟁 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나라고 하는 그물코가 우리 일반화 되어진 상식과 논리를 갖고 너라는 그물코를 제거 시켜버렸다고 합시다. 제거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그물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라는 그물코도 이미 그물코 없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반드시 나라는 그물코는 너라는 그물코에 의지해서만이 성립된다.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예요. 이게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자기를 제대로 아는 일. 자기를 제대로 아는 일. 이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서는 무슨 짓을 해도 어긋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너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혼자 있으면 좋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너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 없는 나는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에..나의 정체성은 너에 의지해서 성립되기 때문에 정체성이 짝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고향, 정체성의 나라고하는 정체성의 뿌리를 뿌리가 없으면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너를 그리워하게 되요. 남자가 왜 여자를 그리워하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성적 욕망뿐이겠습니까? 이성적 갈망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여성에 의지해서만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없는 남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인간이 왜 자연을 그리워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인간이라는 정체성의 뿌리가 자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을 그리워하게 되죠.

우린 공동체 이야기를 하죠. 왜 공동체 해야 합니까? 뭐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왜 공동체를 해야 되죠? 여러 공동체, 산촌 공동체, 마을 공동체.. 다 그런 쪽에 관심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죠? 왜 공동체를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해요. 자기가 공동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하는지 모르면 안되잖아요. 존재 자체가 공동체에 존재해요. 나라는 존재가 공동체에 존재해요. 이세상은 공동체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존재 자체가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개인적인 것을 들든 전체가 그래요. 어떤 측면으로 접근해봐도 이세상은 공동체로 이루어져있어요. 이 세상에 분리되어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재는 다만 분리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념일 뿐입니다. 실재는 분리된 것이 아 마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분리된 게 있는가? 우린 내면 내면 이야기하고 정신 정신 이야기 합니다. 바깥이 없는 내면이 존재합니까? 절대 존재할 수 없죠. 내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물의 그물코처럼 관계지어져 있어요. 세상엔 분리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공동체로 가는 게 좋더라. 어떤 분

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동체를 해보니까 불편하더라..그러니까 공동체 하지말자. 바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제. 야~ 경험해보니까 공동체가 필요하고 좋더라. 그래 공동체 하자 이렇게 되요. 근데 공동체가 좋기만 하간? 공동체처럼 골치 아픈일도 없어요. 그렇게 좋으면 왜 공동체가 다 박살나겠어요? 그러니 이제 아 이거 못쓰것다. 그리고 개인의 길로 가고 이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되요. 그쵸? 그런데 존재 자체가 공동체다. 존재 자체가 이 세계 자체가 공동체로 이루어졌다. 이걸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접근하게 됩니까? 죽으나 사나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이걸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이 아니야. 공동체의 존재이고 사람 자체가 공동체의 존재로 본래부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 있는 이 길은 공동체의 길 말고는 없어요. 없어.. 해보니까 좋은 일 많게 하고 안 좋으니깐 안해버리고 이럴수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가장 본질적인 착각입니다. 첫째 착각. 우리가 이게 공동체를 안 해도 살길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착각 착각이죠. 그래서 길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의 존재이고 이 세계 자체가 공동체로 이뤄진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길 말고는 길이 있질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느냐 어떻게 분명하게 인식하느냐가 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 것 인가에 대한 관건이 되겠다는 거죠. 길이 공동체의 길 말고는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으나 사나 공동체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이길 가다보니까 이게 공동체 아닌 길을 가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 그러면 공동체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공동체 실험은 무수히 해왔습니다. 근데 공동체 보니까 이게 별로 재미없어, 안 좋아.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해. 근데 다른 길이 없다. 공동체 말고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제대로 다뤄볼 수 있는 첫걸음이 되어 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이거는 공동체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공동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공동체 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한 생명이 존재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써 세상을 바람직하게 살아가려면, 공동체길 밖에 없다. 다른길은 없다. 처음부터 왜냐 존재 자체가 공동체의 자체고 세계 자체가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분리,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게 공동체라는 말 아닙니까? 분리된 것이 없다. 우리는 분리된 것이 있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없어요. 그건 우리의 관념일 뿐이에요. 인드라망 체계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인드라망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물 논리로 귀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꽃 한송이 놓고 본다면 이 꽃 한송이에는 이 꽃이 스스로 존재하는게 아니라운 그물코 모두 참내하고 관계되어 꽃이 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꽃자체가 공동체의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가 공동체의 존재고..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개념화시키면 너에 의지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 동양적인 표현은 자타불이,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신토불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 하면, 너와 나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라는게 맞습니

다. 둘이 아니면 하나라는 이야기인데, 하나이면 큰일나죠 태양과 내가 붙으면 어떻게 되요. 응? 한덩어리가 되면 삶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땅바닥과 내가 하나가 되면 걸어다니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바닥과 내가 완전히 분리 되어 있으면 걸어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걸어가는 게 불가능하죠. 완전히 하나라고 해도 걸어가는게 불가능하고 완전히 분리된다해도 걸어가는게 불가능하죠.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해야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말로 뭔가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고 그래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걸 불일불이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걸 또 표현은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젠 옛사람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소홀히 한거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흔히들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 되면 큰일나요. 태양과 내가 하나 된다. 그러면 죽는거지 그렇죠? 또 땅바닥과 땅바닥사이가 하나 된다. 그럼 어떻게돼? 꿈쩍달짝 못하는거죠! 세상에 하나 된다는 게 뭘까? 우리는 하나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됨이 뭘까? 사실은 실체는 하나 되어서도 안되고 둘이 되어서도 안되는거예요 둘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것이고, 하나가 된다는건 한 덩어리 되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 죽습니다. 태양과 나는 저만큼의 거리가 유지가 되어야 내 삶이 가능해지지 이게 한 덩어리 되면 삶이 불가능해지지. 또 반대로 완전히 분리되어버려도 내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것도 죽음의 길이고 또 분리된다는것도 죽음의 길이라는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되는것인가? 거기에서 삶의 논리로 등장하는 것이 부리의 논리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것 또다른 말로 표현하면 균형과 조화다. 태양과 나라고 하는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것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문제에 공동체다 본래부터 공동체다 온세상이 공동체로 이루어졌다. 분리된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길은 이미 결론나있어요. 결론 나있어. 더불어 함께 사는거죠. 그렇잖습니까? 더불어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불어 함께 살려면... 당연히 서로 도와야죠.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요즘 우리 미국 이 국가 체계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주적 질서 우주적 법칙에 이부분에 대해 우리가 거의 무지해요. 우리는 두개의 질서 속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는 자연질서 우주 질서 하나는 뭐 생명질서, 뭐 자연법칙 우주법칙 생명법칙이 하나 있고 인간들이 만든 법칙이 있죠. 우리는 두개의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개의 법칙. 그런데 현재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에 그래도 이 우주적 자연질서와 인간의 질서가 이게 혼재해서 탈이 없는데, 지금은 자연질서가 거의 망각되고 있어요. 망각, 무시. 인간질서 인간의 법칙으로만 돌아가고 있어. 서울이라는 도시를 한번봐보세요. 거기에 자연질서가 존재하는가. 자연 법칙이 과연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지...전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법칙만이 인간의 법칙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재의 실상 자기 존재의 정체성에 대

해서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 자명의 주문입니다. 그다음 왜냐 길이 한길밖에 없으니까요. 다른길이 없어요. 다른길이 함께 산다... 함께 살라니깐 서로 도운다. 또 함께 살려면 골고루 나눠야 한다. 이세가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길 밖에 없다. 함께 살려면 서로 도와야 한다. 함께 살려면 골고루 나눠야 한다. 이거거든... 다른길이 없어요. 다른길이..

우리는 미국문제를 놓고 생각해봅시다. 브라질, 반미, 친미 이렇게 보죠. 자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미국을 싹 제거시켜버리면 어떨까요? 우리 삶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한국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좋으나 굶으나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요소를 싹 제거시키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어. 이미 미국은 사회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입속에 우리 눈 속에 귀속에 의식주 생활의 모든 것에 뿔레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실제 떼어내 버리면 실제 존재할 수 없어요. 한국사회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미국 때문에 안 된다고 미국 쫓아내버려야 한다고 그러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친미도 마찬가지로. 미국에만 의존해서 가능하게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문제를 친미 반미 문제에서 접근하면해답이 나올 수 없다는거죠. 어차피 이미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 없는 우리 공동체적 존재. 어차피 공동체적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정상적 관계, 정상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지. 이게 반미냐 친미냐 가 아니야. 반미냐 친미냐가 아니지 정상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아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미 관계를 바라보고 다루게 되면 전혀 다른 태도와 논리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친미냐 반미냐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 그러다보니까 우리들이 이야기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인식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죠. 친미냐 반미냐 관계에서만 바라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죠.

또 우리 자연의 우주법칙, 자연법칙, 또는 존재의 정체성 이런 관계 속에서 한번.생각해보죠. 여름에 더위를 여름에 덥지 않게 사는 것을 최고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을 싸움의 대상으로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름의 더위를 우리는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제거의 대상으로 여름에 더위가 없으면 어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건강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름의 더위는 정말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대상이고 잘 사귀어야 할 대상이고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할 대상이지 그건 공격이 대상이거나. 싸움의 대상이거나, 파괴의 대상이거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름의 더위를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함께 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잘 사귀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든 여름에 더위는 없는 것이 최상이라고 보아요. 이게 다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좀 더 추상적 개념이라고 뭐 자연법

칙 우주의 법칙 생명의 법칙에 대한 무지, 무시의 결과죠.

겨울에 추위는 겨울에 추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겨울 추위가 없는 내 생명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겨울 추위가 없는 우리들의 삶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겨울에는 추위가 없는 삶을 최고로 잘사는 삶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추위와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추위를 잘 사귀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추위를 내 생명의 절대적 조건이다. 고로 추위와 함께 해야 한다. 잘 사귀어야 한다.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를 들어서 석유 난방비가 한 50%는 자동적으로 줄어들꺼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에너지 절약이 50%로 줄어들어 50%.. 여름을 예를 들자면 선풍기까지 에어컨까지는 아니고 선풍기까지..조금 철이 있는 사람은 부채정도로 우리가 함께 여름 더위는 내 생명의 절대적 조건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름의 더위는 함께 해야 한다. 잘 사귀어야 한다.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런 인식과 태도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전체는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간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중에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연법칙이죠. 그렇잖아요. 다행히 인간보다 자연이 먼저 있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이 자연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정확하게 존중하고 자연의 법칙에 맞게 인간법칙을 운영하고 이렇게 가야 맞는거야. 그런데 지금 싹 무지하고 무시하고 인간의 법칙대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다루는 부분을 결국은 공동체의 부분이다. 공동체로 이루어진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인드라마 세계관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인식,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그 논리로 한번 다른 것을 생각해보죠. 저기 있는 건물과 여기 있는 건물과 지리산에 있는 물건과 어떤 것이 무거운 것 같습니까? 사실은 뻔한 질문은 뻔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리산이 무겁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물코 논리로 보자구요. 지리산을 짊 들었을 때 그 그물의 무게하고 이 건물의 그물코를 짊 들었을 때의 무게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떨 거 같아요? 다르겠죠? 당연히 같죠. 왜냐하면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더 가볍고 무거운 게 생기는데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그물코를 들어도 그 건물의 무게이고 저 그물코를 들어도 그 건물의 무게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있으면 무게의 차이가 나오는데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인드라마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마치 인체를 놓고 보면 왼손을 잡고 들어도 오른손을 잡고 들어도 그 무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들면 전체가 다 움직이게 되어있어요. 세상이치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입니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보면 너라고 하는 대상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함께 살아야 해요.

아무리 미국을 미워하더라도 지구에서 미국을 떼어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모순된 사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 모순된 사회를 미국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본가가 만들었다고 정치인이 만들었다고..그렇지 않습니다. 모순된 사회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순된 사회를 만든 책임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책임의 경중은 따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미국이 더 크다. 대통령이 크다는 경중은 따질 수 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모순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근데 왜 모순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일까? 첫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무지 자기 존재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인식, 삶의 왜곡된 이해와 인식. 이것이 우리사회를 매우 뒤떨어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들의 사고의식, 우리들의 가치의식, 우리들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뒤떨리고 병들리니깐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마무리된 사회니깐 모순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가 삶의 문제죠. 환경문제도 아니고 사회는 다 2차적인 문제요. 일차적인 문제는 각자가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삶에 대한 올바른 눈뜸. 이 부분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천지개혁을 맨날 해봐도 또 개혁 개혁.. 또 개혁 개혁.. 또 개혁해야 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개개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제대로 사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고 삶을 다뤄가는 이걸 자기 혁명이라고 할수 있어. 주체적 자기 혁명. 자기 혁명에 기초하지 않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또 혁명을 해야하는 거죠.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 문명사가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문명사를.. 개인의 경험도 조금 더 관찰해보면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자기 혁명이 없는 자기 혁명에 기초하지 않은 사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또 다시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경험해보면 나를 알고 너를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람관계를 다루는 방법과 기술이 필요해요. 첫째, 기본적으로 나를 알고 너를 잘 아는 게 중요하고, 나를 알고 너를 알아보면 어떻게, 너는 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죠. 원수든 친구든 간에 어쨌든 공동체라는 것, 동반자 되는 것.. 동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반자의 길이다.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신뢰인겁니다. 동반자인 것 같이..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뭐예요? 죽으나 사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죽으나 사나 함께 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인식이 전제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반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해보다가 좀 힘들면 팽개쳐버려요. 죽으나 사나 동반자의 형태로 접근하게 보면, 어떤 형태로든 찾아낼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죠.. 인내하게 되고. 기다리면 되고요.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결국에 나는 너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낮춰야 하고, 비워야 하고 내 정체성에 맞는 태도입니다. 너에 의지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 신세지고 태어났고, 신세지고 살아가는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 존재의 정체성에 맞는 내 삶의

태도는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나누자. 이게 바람직한 태도다. 그런가하면 너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게 본질 정체성에 맞는 내 태도고 너를 대하는 태도라는거죠. 피차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보면 달리 갈 길이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나누고, 너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는 비우고 남은태도로 너를 대할 때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신뢰에 동반자의 신뢰를 갖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 이 태도 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대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 이태도 말고 다른 태도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방법과 기술입니다.

사람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보면 사람관계예요. 사람관계.. 여기 보면 20쪽에 보면 함께 사는길, 이렇게 이야길 했고, 21쪽에 보면 서로 돕는길, 22쪽에 보면 균형을 유지하는 길, 22쪽에 보면 가치창조에 대한 길. 지금까지 설명한 게 전부죠. 그것이 다시 말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이유, 그것이 왜 그런가 존재의 정체성이 그렇게 돼있어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 세계 자체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해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렇게 갔을 때만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거예요. 그렇게 갔을때 그렇게 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다.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동안 우리는 뭐 늘 평화를 이야기 해왔습니다.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온통 평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싸울 논리죠. 미국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 할 때는 거기 이라크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평화에 이라크 사람들이 포함되어 진다면 이라크 전쟁 할 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불교인들이 이야기 하는 평화에는 기독교인들의 평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평화에는 불교의 평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야기 하는 평화에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에는 진보주의 평화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온통 패거리일 뿐입니다. 온통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그 원인은 결국 존재의 정체성.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무지, 인식의 부족, 국가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뭡니까? 자연이지 않습니까? 국가, 민족, 종교. 이런 것들보다 더 우수한 게 뭡예요. 지구라는 자연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것, 한국이라고 하는 것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적인 법칙만을 중요시 여기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지하고 살아온 것이 그 동안의 문명사회예요. 그것이 극한적으로 와있어요. 그동안 그것을 잘 몰랐는데 극한적으로 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 재앙으로 나타났고, 자연보복으로 나타났고..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귀농을 해야 한다, 환경보호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관점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환경문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관계를 다루는 방법과 기술, 이걸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거니까... 뭐 획일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존재의 정체성에 맞는 내 삶의 태도, 이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을 하면 그다음에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천차 다양한 관건이 ,나올수 있죠. 다양한 기술들이...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낮춘 자로서 비운자로서 또는 나누는 자로서 또는 상대에 있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존재의 법칙이다. 또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찾아가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확신을 하면 그 토대를 사회문제에 다른 문제에 비롯해보건데...그러면 그다음에 방법은 스스로가 얼마든지 찾아내는거야. 얼마든지 찾아 내는 거야. 때에 따라 인내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는 뭐 야단치기도 하고 또는 뭐 설득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거야 그런데 사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대화입니다. 대화는 대단한 방법과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나 대화가 잘 되려면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나눠주는 태도.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난 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 저절로 나온다고 봐요. 어쩌면 그러한 의사소통을 대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동체를 해결하고 나면은 대화라고 하는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대화와 방법과 기술 이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개발도 해야하고 훈련도 해야해. 왜 그러느냐? 우리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호흡이 맞을 때는 백지장도 맞들면 나운데, 호흡이 맞지 않으면 백지장을 맞들면 어떻게 되요? 찢어져버려요. 호흡이 맞네 안 맞네의 문제예요. 그냥 백장을 들면 무조건 좋은게 아니고 호흡이 맞으면 분명히 좋고 호흡이 안 맞으면 안 들만 못하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 호흡을 맞추는 일인데, 호흡을 맞추는 절대적인 조건인 뭘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 비우는 것, 나누는 태도. 낮추고 비우고 나누는 태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호흡을 맞추는 핵심이죠. 이 일만 되면 공동체는 희망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전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고, 적게 벌리냐는 문제는 이것만 확실하면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더 효과적이니까~ 남기기도 하고 쓰기도하고 적금은 또 적금하는 대로 적절하게 조절해갈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면... 이것이 안되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기는 대로 말썽,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말썽이 되어 지지. 이 기본이 안되면,.. 많으면 많은 것이 재앙이 되어 지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 것이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가치창조를 위한 주체. 어쨌든 주체성 창조성, 주

체성 자주성 창조성. 이 세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체성과 자립성과 창조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도록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사회가 그걸 용납하지 않고, 국가가 2만불 시대에 이렇게 하니깐. 너도나도 2만불 시대를 향해서 가는 거죠. 부자는 부자대로 행복해. 너도나도 부자를 향해서 목을 매게 되는 거죠. 일등만이 살길이야. 그러니깐 너도 나도 거기에 살려고 집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주체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누가 제시해진 가치에 맞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린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주체성, 자립성, 창조성.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그리고 바람직한 삶을 만들어가려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뭔가를 정확하게, 주체성.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내 노력으로 살겠다는 자립성, 누가 누구에게 주어진 가치라든가 내가 만들어 가는 가치. 창조성. .

도농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통 한국에 도시사람들이 찾아온 동네를 어떻게 만들거 같 것인가에 관심있어. 이걸 백번 실패한 문제. 결국 우리는 도시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지.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인이 오면 살고, 안오면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촌 마을이네~ 무슨 지역 공동체 대안공동체 등 다 들이다 보면 어떻게 도시 사람들을 불러올 것인가에 주제에 맞춰져 있어. 이걸 가게 열어놓고 사람없으면 가게문 닫는거랑 똑같은거지. 결국 도시인들에게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

철저하게 지역, 개인과 지역이 어떻게 하면 자립적 해결을 할 것인가에 기본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서 도시사람들도 자율적 태도에 맞춰 있지 않고서는 도시사람 오는 것에 자꾸 초점을 두게 되면 이걸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 결국 모든 문제 실패조건 실패될 이유가 지역의 주체성과 자립성, 창조성. 이것을 어떻게 중심에 두고 문제를 다루어갈 것인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것이죠. 됐어. 철저하게 주체성과 자립성, 특히 대안을 모색하는 쪽에서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담고 가야해요. 그걸 토대로 하고서 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이것 없이는 외부관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율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뒀야하고, 그래서 뭐 비율로 따지자면, 50%~60%는 자율적 토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다뤄져 갈수 있도록. 그래야 외부가 흔들리더라도 치명적이지 않게 되요. 그런데 자율적 토대가 약해져버리면, 외부가 흔들려버리면 바로 흔들리게 돼. 철저하게 주체성과 자립성과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면서 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 이야기를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차 교육

가. 강좌일시

2006년 9월 13일(수) - 15일(금)

나. 강좌장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생태마을

다. 참석인원

20명

라. 강사이름 및 약력

프 로 그 램 명	강사 · 안내자 / 소속
홍동지역 둘러보기	방인성 외 / 홍성환경농업교육관 사무국장
[강연1] 마을 공동체 만들기	주형로 / 홍성환경농업마을 대표
[강연2] 지역 속의 학교 만들기	홍순명 / 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장
[강연3] 지역의 길과 숲 만들기	유영민 / 생명의숲 활동기획국장
[강연4] 농산촌 자연에너지의 순환적 활용	정민철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과정
[강연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보전과 관리	반영운 /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바.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생태공동체 마을 가꾸기 - “생명과 평화의 터”

시 간	13일(수)	14일(목)	15일(금)
08:00 - 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 - 10:00		[강연3] 지역의 숲과 길 만들기	[강연5] 농산어촌의 자연 경관 보전과 관리
10:00 - 11:00			
11:00 - 12:00		모둠별 토론	평가 및 마무리
12:00 - 13:00	접수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 14:00	오리엔테이션, 인사	[홍동지역 둘러보기-2]	
14:00 - 15:00	[홍동지역 둘러보기-1]		
15:00 - 16:00		휴 식	
16:00 - 17:00	[강연1] 마을 공동체 만들기	[강연4] 자연에너지의 순환적 활용	
17:00 - 18:00			
18:00 - 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 - 20:00	[강연2] 지역 속의 학교 만들기	종합토론	
20:00 - 21:00			
21:00 - 22:00	모둠별 토론	마음 나누기	
22:00 - 23:00	취침		

- **홍동지역 둘러보기**
문당리 마을과 풀무학교, 환경농업교육관, 농산물 직거래 센터 등 홍동지역을 둘러본다. 마을의 주민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마을 전반의 분위기를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강연1] 생태마을 가꾸기**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이 생태적으로 유지,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마을로 탈바꿈하고 생태마을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총론적 관점에서 짚어본다.
- **[강연1] 마을 공동체 만들기**
문당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한 역사와 과정을 들으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고민한다.
- **[강연2] 지역 속의 학교 만들기**
풀무학교라는 지역속의 학교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과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도 살고, 사람도 사는 상생의 과정을 듣는다.
- **[강연3] 지역의 길과 숲 만들기**
지역의 숲을 만들고 가꾸면서 농산촌 마을의 경관 복원, 마을 공동체 문화 회복 등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 **[강연4] 농산촌 자연에너지의 순환적 활용**
생태공동체적인 마을의 자원순환형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및 지력 등 자연에너지의 친환경적인 활용시스템의 사례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인다. 각 마을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강연5] 농산어촌의 자연 경관 보전과 관리**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정주환경을 만들어가고 보전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인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또한 자연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공유하고 실천영역을 높인다.

사. 강의원본

- 자료집과 같으며 기조 강연(홍순명 선생님의 ‘지역 속의 학교 만들기’)의 녹취를 첨부함.

지역 속의 학교 만들기

홍순명

여러분 그 명단을 보니까 전국 각처에서 오셨대요. 얼마전은 좀 더웠는데 좀 선선히져서 다니시는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하고 항상 지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저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이렇게 여러 지역분들이 모여서 견학도하시고 그게 다 공부니까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건데 새로운 기술도 배우시게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그런 지혜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농사는 공부 안해도 할 수 있다 했지만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고, 농업만치 공부를 많이 해야되는 그런 직업도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제가 몸 달고 있는게 풀무학교인데 풀무학교라고 하더라도 그저 넓은 뜻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하고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처음이시죠? 그럼 실상사에서 1차 공부를 하신 것 같은 이 1차 공부를 하신듯한데 여기는 이게 참 모라고 그럴까요. 저 산도 높지 않고 평평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조금 빨라졌지만은, 충청도는 느린걸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밖에 풍력발전도 있는데 잘 안 돌아요.. 천천히 돌기도하고..

또 저는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도 그 애긴 했는데 이제 사실 화장실문화가.. 옛날에는 변소가 냄새도 나고 또 잘 처리하지 못해서 파리도 많이 생기고, 비위생적이고 이제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농촌에도 설치를 해요. 학교에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게 뭔가 현대화 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살펴보면 물도 많이 들고 전기도 들고 정화도 안돼요. 세균들은 아무리 정화시설을 잘 해도 하천으로 들어가고 오염이 됩니다. 활용을 못한단 말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냄새나는 불편한 걸 할 순 없고..그래서 왜 냄새가 나는가하면 그 사람의 인분에 미생물이 많이 모여들어서 냄새가 나거든요. 혐기성 세균들.. 그것만 차단하면 냄새날 리가 없다해서 세균들은 습기 수분을 좋아하니까 수분을 차단하면 안 몰리고 세균만 안 모여 들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그만 저 플라스틱 통에다가 위에다가 합판으로 의자처럼 만들고 거기다가 슈퍼에서 변기 뚜껑을 고정시켜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톱밥이나 왕겨를 넣거든요 왕겨는 무료니까..그래서 냄새도 안나고 그러면 파리도 안 꼬이고 냄새도 안나요. 톱밥하고 섞고, 왕겨하고 섞는 한은..그런데 이렇게 설치하는데 19000원 들었어요. 플라스틱통이라는 하는 것은 건축하는데서 굴러다니는 거니까 얻고 합판은 모 그 몇푼 합니까. 사람들 의자만치 만들어놓고 의자에다가 위에다가 그 통만치 구멍만 뚫어 놓는거니까. 그리고 그 변기통이라는건 그

얼마던가 9000원이던가. 그래 가지고 총 19000인데. 그게 다 해결이 되요. 모 냄 새 낱알도 없고, 재활용 하고 오염이 안되고 화장실에 따르는 많이 기구가 필요없고 가장 생태적이면서 간편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보내는 거는 순간적으로 하는 일이지만은 그것을 발효시키는 것이요. 또는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 아는 분이 그 넓은 땅에 채소를 가꾸는데 어떻게 풀을 메며 어떻게 그 거름을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다.. 두 부부가 하거든요 이만천평을.. 자기는 전부터 주변에 해남이 바다에 가깝기 때문에 바닷물을 퍼다가 양통에다가 넣고 2주일 지나면 그 염분이 분해가 된대요. 발효가 된다, 이끼가 생긴다.. 그런 상태에서 물에 타서 주면 배추가 아주 튼튼하게 되서 그걸 이제 주부님들 같이 오셔서 모든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김치를 담궈 가지고 기쁘게 돌아가시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바다에 가서 이렇게 소금을 얻어오니까 돈을 얼마나 내면 좋으냐고 바다에 얘기하니까. 바다가 모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하하하.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발효 하면은 바다의 염분하고 0.9%인데 사람하고 같고 또 수분을 살면서 잡티를 다 제거하고 아주 순수 염화나트륨만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염화나트륨에는 여러 미네랄이 섞여있지 않는데 그 미네랄이 안 섞이면 그 짠맛밖에 없으니까 억지로 모 미네랄을 공급해서 또 넣는가봐요 그런데 바닷속에서의 미네랄이라는 것은 판명된 것만 80가지지만, 우리가 잘 판명할 수 없는게 400가지가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제거하고 염화나트륨만 먹는 것도 문제고, 또 그것은 바닷물 성분은 사람인체의 염분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이 또 흙을 통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발효라는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미생물의 협력을 얻어서 그래가지고 그 우리들에게 또한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빨리 빨리 라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지역의 느리다고 그러는 것은 단점이기도 하고 또 그게 장점일수도 있다. 여러 지역의 특성들이 그렇게 살려주면 좋지 않는가 그런 모 서두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저는 그 60년에 여기오고 그 이전에는 몇 해 있어가지고 저 훈장노릇을 한 50년 넘게 했어요. 제 아버지도 그런일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오래 있다 보니까 차례가 되어가지고 교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교장을 중심으로 학교가 되는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학교에 관련된 여러 사람의 교통정리를 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교육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그런거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정도지 모 교장은 명령으로 학교를 이끌어가고 그런 것은 이제 좋은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장도 하나의 역할에 불과하고 선생님들을 이제 교장이 못하면 학생들을 좋아하고 학생들을 활기 있게 하고 학생들에게 지식의 동반자가 되고 또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는 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지 않고 남학생들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요. 지역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도시학생 시골학생 섞이는 것도 좋고, 여러 지

역 학생들이 섞이는 것도 좋고 남녀학생들이 섞이는 것도 좋고 또 잘하는 공부잘하는 애 못하는애 섞이는 것도 좋다 못하는 학생 특히 장애학생들도 하나둘 같이 있는 것이 모 장애아를 구제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장애아들을 봄으로써 저희 어른들도 그렇지만은 우리들한테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사지가 멀쩡한 것이 고마우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은 그 장애자들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자들이 또 그런 갈등을 극복하면서 또 어떤 마음의 순수성이 있어요. 우리가 혹시 너무 세월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순수한 마음,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지 않은가..그들도 우리들과 함께 사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사회 나가서 어울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자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건강한 비 장애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모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하여간 여기까지 지내왔는데 어떤이는 명함에다가 난 백성이라고.. 농부는 백까지 일을 하니깐 그런 자랑스럽게 쓰기도 했어요. 저희 나라에도 저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영농 회장님이 그 양반은 명함에다가 좀 독특한 분이어서 자기는 촌놈이라고 명함에다가 그런데 너무 자기를 낮추는 말이 아니냐 그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놈이라는 것이 지금은 좀 남을 폄하하는 뜻이지만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저 사람을 부르는 그저 존칭에 가까운거 였다고 그래요. 시골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말이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농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시골학교 선생님이다 그거 모 특히 내세울 것도 없지만 특히 그거 모 저 무슨 그 그거할일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저 스스로를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 고마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모 여러분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인구가 4천명쯤 되고요. 또 어떤이는 와서 해발이 몇 미터냐고 그러더라고요. 해발이 몇 미터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땅이 이렇게 바로 붙어있는 줄 알았더니. 해발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모 어떤 지역은 높아가지고 비행장이 벌써 산소가 부족한 지역도 있으니까 그래,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에서 바다 가깝고 100m정도 높다고.. 높은 산은 해발 300m 정도 그러고 눈이 많고 산이 우리나라 다 그렇지만은 산이 많고요. 밖에 또 축산도 하고 모 고루고루 또 조금. 그 한국에서 말하는 보통 그런 농촌이 아닌가 무슨 그 산이 강원도나 경상도처럼 아주 웅장하지도 않고 경기도 무슨 전라도처럼 강이 모 아름다운 강도 없고 그저 모 평범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 지역의 특색이라고 그러면은 모가 있겠나.. 이제 인구는 4천명인데 그 학교가 있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 공부라는 거는 생소한 이름인데 고등학교 마치면 2년 유기농업 배우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 안에 이렇게 갖추어져있다 이제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야 많겠지요. 선생님들이 그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는데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어린애들은 지역을 떠날 애들이고, 또 이 학생들은 학교에 속한 학생들이 아니라 지역에 속한 학생이고 학교라는 환경보다 지역이라는 커다란 환경속에서 자라니까 또 이 애

들을 아주 소중하게 잘 교육을 시켜야된다 그런 공감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급식을 유기농으로 작업을 부담을 해서 일시적인 그런 구성품에서도 그 이제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유기농 급식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공립학교가 같이 협력을 해서 재량활동 또 종합시간, 방과 후 시간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또 지역의 생태조사라던가 체험이라던가, 행사, 또 뭐 축제를 같이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하시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의 농부들도 이제 공부도 하시고 또 영농법일도 하시고 협동조합도 하시고 하실 일이 많지만은 그 저는 농소정이라고해서 농민과 소비자와 행정의 협력해야 된다. 학교도 협력을 해야 된다, 농업은 농민만이 아니고 관련된 모든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되겠다 그런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면 지역의 체험을 한다 그럴 때 학교선생님들은 학교다니면서 이론은 알겠지만 농사에는 농자도 몰라요. 억지로 할라고 그러니까 장난처럼 되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애들은 지역의 애들이다 그래서 지역농장에 데려다가 같이 일을 시킨다던가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도 제대로 된 생태 체험을,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모 그런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역하고 학교가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빨리 도시로 보낸다, 지역하고 특별히 관계없이도 교육을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제 댄에는 생생한 교육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배우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지금 40대이상 분들은 지역사회 속에서 사철의 변화와 집 안 심부름과 또 지역의 행사와 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학교와 학교끼리 서로가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이제 남남이 되고 그래선 안되는데 교류하고 이쪽에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저 쪽가서 가르쳐주시고 또 이쪽선생님이 좋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러면 얼마나 생생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지 농업은 농업 교육은 교육 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생태라는 것이 서로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또 그런 세상이 되어야하니까 그런 된다는 거는 틀림없는 일이니까 자꾸 조금씩 바뀌어야 하는지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무학교에서는 그 처음에 교육을 할 때부터 교육은 농업하고 관련이 되어 한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풀무학교를 처음시작한 분은 오산학교에서 오셨는데 20세기 초에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해서 독립을 하자. 교육을 통해서 근대화를 하자 그런 어떤 대단한 정신이 있었거든요 일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같이 아시아를 평화 속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 무력으로 맞서는 것보다 아주 양심에 호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평화를 이루자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정신이 통일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럴만한 기량들이 있었던 분들이 예요. 그런데 오산학교에서 시작한 분들이 교육은 교육만해서는 또 안된다. 교육하고 기독교하고 농촌이 또 하나가 되어야한다 했어요. 하여튼 그거 참 굳게 믿었어

요. 참 우스운 이야기긴 한데 그 오산학교에 이제 주위들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선생이 글만 가르치면 되는데 애들 글가르치고 나서 다 집집이 다니면서 집집의 청소상태를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그래야되나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검사를 했어요. 요새 갈아서는 참 생각도 못할일인데.. 이불 다 밖에 내놓으라고, 이불이 지저분하면 이것 좀 다시 빨라고 선생님들이 집집이 다니면서 청소상태, 부엌의 단정한 정리상태, 그런 것을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렇게 더럽게 하고서 일본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독립할 자격이 있느냐 아 그러면 참 학부모들이 동네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다 호응을 해 준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하지만은 학교에는 공장도 세우고 병원도 하고 우리가 하여튼 일본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라도 이만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학교는 지역하고는 뗄 수 없다 그런 교육을 하다가 그만 일제시대 탄압받아 폐쇄되고 폐교가 되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남한에서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려면 농촌과 하나다 그래서 설립한 그 분이 우리나라는 금세 백년동안 무수한 고난을 겪었는데 고난이 압축된데가 다른데 가아니고 농촌이다. 농촌 생활을 좀 퍼게 하고 농촌이 뭔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우리가 고난의 역사를 다시 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는 농촌에서 풀어야한다고 아주 굳게 믿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학교를 시작했으니까 교육하고 농촌은 뗄 수 없는가보다 이제 저는 그때 군대 막 마치고 왔으니까. 23살이었는데 아니 모 그렇게 아주강조를 하니깐 또 젊을 때는 그런 그 이상에 공감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가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 나타난게 뭐냐면은 그 양반은 학교를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칠판 있어야죠, 분필 있어야죠, 교탁 있어야죠, 책상 있어야죠, 그다음에는 뭘 해야하냐면은 학교에다가 구판장을 해야 된다. 아이거 뭐 학교에 무슨 구판장이 뭐 필요하냐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양반은 학생들이 시골에서 일을 하려면 협동조합을 배워야하는데 협동조합이라는거는 뭐 갑자기 크게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구판장부터 해보고.. 그래서 그런 그 경제관념 같이 협력을 해서 운용을 해가지고 그 이익금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걸 배우는 게 교과서에서 역사나 영어를 배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레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때는 공부다 끝나치고 나서 예산에 가요. 예산은 지금도 저 버스로 삼십분가거든요. 도매점에서 가서 사가지고 8킬로 걸리는데 걸어서 이제 뭘 학생들이 지고와요. 지고 오는 게 많지 않죠. 학생들이 작으니까 학생들에 필요한 학용품이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그 마중을 가요 도중까지 그래서 이제 수고한다고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공부만안하고 이런걸 시키느냐고 불평할지도 모르지만은 이게 다 아주 훌륭한건데요. 덴마크라는 나라도 저 자기들의 문화 자유스러운 학교 또 평민, 농업, 협동 이런 것을 가르쳐서 효과를 잘만해서 아주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50년 전이지만은 덴마크의 그런 그 전통이 교육의 전통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유기농업에 관한한 자기네들이 그러더라고요. 덴마크서 다 만들고 유기인증 그것도 덴마크에서 만들었다. 유럽을 통화해서 미국으로 해서 동양으로 간다고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셨는데 또 학생들이 공부안하면 안된다고 선생님들이 또 하다 보니까. 모 하여튼 그 협동조합이라는게 옛날에는 학생들을 중학생이죠. 모 그런 중학생들의 그 만큼의 선생님이 자전거 뒤에다 짐차에 올려놓는 그게 협동조합이니까. 모 나를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었어요. 신용조합도 학교에서 했는데 기관총 탄피 넣는 통을 이용했어요. 이렇게 휴대용 신용조합이었어요 그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그 십원을 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고 해보니까 외국에서는 지역마다 언론이 큰 역할을 한다.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 졸업논문을 쓰게 했는데 지역에서 네가 뭘할건지 쓰라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자기는 신문을 지역에서 내는걸 쓰겠다고 그래 아 좋다고 그런데 논문을 쓰고 나서 부산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선거 때 보니까 공무원 골치 아프다고 학교에서 무직원으로 오겠다고 그래서 조그맣게 파블로이드 판으로가 신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는 그게 내면 되는줄 알았더니. 어느날 통지가 날라왔는데 그 정기간행물인데 신고를 안했다 그래서 법에는 등록만 하면 된다지만 실제로는 허가제인가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동네사람들 나눠주면 끝인줄 알았더니 발매금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저 그런데 어떤 신문에서 아 이거 안되겠다 칼럼에다 쓰고 그래 저희는 그 이제 그 까만테를 둘러가지고 이제 그 외국에다가 보내는 시골에서 밤늦게 불켜 있는데는 지역신문이다 그래서 불켜있는걸 보면 지역이 살아있다 근데 여기 이제 불이 꺼지게 됐다고 이런 좀 감상적인걸 써가지고.. 러면 인제 허가가 안 되면 일단 안냈다가 제목 바꿔서 또 내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역신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이라고 그러기도하고 요새는 인터넷 신문도 내고 뭐 그리 조그마한 것이 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졸업생들이 또 지역에 남아서 다행히 그들이 또 받고..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초를 마련한다 그거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학교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건 안된다. 왜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니까요. 그 교육하고 실무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다행히. 지역에서 졸업생들 교육자들,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협력을 해서 그것들이 한 50년 지나니까 이것저것 지역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이제 까지 내려왔는데.. 보셨겠지만은 제생각으로는 좀 더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을터인데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나 그런 채로 해왔어요.

유기농업을 1975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력저력 어떻게 됐나. 또 25년하고 6년이 됐으니까 31년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거는 그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역이 이제 복음이 돼서 지금까지는 모 저 좀 이렇게 유기농업이 단지화 됐다고 그래요 국내에서는 그러는데 또 시장이 소비자 시장이 막혀가지고 안팔린다 그래 걱정인데 또 뭐 국제단체들이 협력을 해서 올해 것은 어떻게 팔리게 됐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렵다 모 그래요. 소비자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할텐데 가게비에서 이제 식량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되거든요.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소비자 가

계비에서 정보통신비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리고 일년에 60k 사람이 먹는데 60k가 비싸대나 뭐 80k가 30만원 좀 안되니까 60k가 이십 몇 만원인데 한달로 나누면은 그저 여섯달이 십 몇 만원이라 한다면은 이만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업 이라고 하더라도 한달에 18000원 정도일텐데 이게 비싸니까 못산다.. 우리나라 소비시장의 의식이 그런 것은 좀 전환이 되어 하지 않을까 이런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역의 조금씩 조금씩 생겼는데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역애기로 넘어갔는데 이제 학교 특징이라고 그럴까 몇 가진데 학교는 좀 작아야되겠다.. 그런것도 있었고 작아야 서로 이제 학생들 완전히 파악하고 또 학생들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또 뭔가 학생들 개인적으로 격려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가족적인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는 그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식보다도 생각하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일정한 시간의 노동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실업학교 졸업은 60%로 많지만은 30%미만에서 농사, 목공, 컴퓨터, 요리, 옷 만들기, 김치 만드는데 이걸 배우는게 꼭 필요하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을 상기하는데 이를테면 대하는게 구체적이고 생명을 갖고 있는데서 부터 느껴지는 감성 이게 중요하고 또 체력도 되고 능력도 되고 또 일을 하는 것은 의지력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의지도 기른다 그래서 전인교육차원에서 이걸 좀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어디가서든지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공포증은 없어야겠다 그래서 설립한분이 재미난 얘기를 하셨는데 일만하면 소고 공부만하면 도깨비고 우리나라는 소나 도깨비만 많으니까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사람이 돼야된다 그런말을 했어요. 학습량이 너무 길다고.. 저희는 최근도 생각을 합니다 일반 인문 학교에서라도 삼년동안 하다못해 한 시간이라도 뭔가 모도 심어보고 김도 메보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런걸 안해보면 다 탁상공론을 하기가 쉽거든요 머리로만 옳은 게 실제로는 안 맞는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은 지속가능한 세계가 되어야된다 지난해부터 UN에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교육을 해야한다. 10년을.. 올해 2년째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속가능하다 그러면 경제하고 환경하고 사회가 맞물려서 같이 발전을 해야한다. 경제만 발전하면 안된다 경제만 발전하면 환경이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경과 경제가 같이 물려가고 경제와 환경이 잘되더라도 사회가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 범죄율이 높거나 자살율이 높거나 가정파탄율이 높거나 하면은 안되겠다 같이 맞물리는데 지속가능한 사회고 그것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정치는 표를 너무 의식하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쳐야된다. 왜냐하면 10년 뒤에는 그들이 다 어른들이 되고 사회 시민이 되니까 그래 학교에서부터 지속가능을 가르쳐야 지구가 파멸이 안된다. 그 UN 사무총장이 그랬어요. 21세기 가장 큰 도전은 지구가 지속가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 그것은 학교에서 해야한다 그랬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도 그걸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교에서 지속가능 환경을 생각하면은 농업에 대해서 농업은 거기랑 직접 관계가 되거든요. 싸면 좋다

한달에 2만원인데 좀 싸면 만원이나 팔천원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이제 자기 지역에서 햇빛과 물과 공기와 미생물과 만들어낸 예술품인 농산물인데 그 우리들을 건강하게 하는거거든요. 외국의 흙 외국의물, 외국의 공기, 외국의 미생물이 가꾸고 거기다 이제 또 레이저를 쏘고 그런 것이 우리들한테 정말로 몇 천원 차이 때문에 그걸 의존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라도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어도 자기 텃밭을 가꾸고 아파트에서라도 가족의 건강을 가꿀 줄 아는 그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소공도라는거는 재미난 표현이면서 조금 과장이 아닌가도 싶지만은 아니다 누가 그 환경에 관심을 갖는 교육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사람 한사람은 다 위대한 평민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 지식을 뭘 암기력이 많고 빨리 배우요 그런데 이제 교육학자 얘기로는 대개 다 빨리 배우는 사람이 더 늦어요. 구구단도 모 초등학교 1학년때 떼는 애도 있고 2학년 때 떼는 애도 있고 요즘은 다 떼거든요. 그래서 말도 영어도 참어렵긴 어렵긴 어려운데 우리나라 사람 6개월 지나면 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배우는 사람 있고 느리게 배우는 두가지 밖에 없다. 그걸 모 슬로우 러너 하고 패스트 러너라고 하는데 또 자기가 뭘 빨리 기억력이 없는 대신에 다른걸 잘하는게 있다.. 여기 또 재미난 게 생각한게 있는데 또 우리 오리농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리농사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는 쌀겨에다가 바닷물에다가 뭐 우렁에다가 잘 적절하게 배합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는 아시아의 오래된 속담을 수집을 하는데 한국의 오래된 속담을 좀 조사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로 우리나라의 오리에 대한 좋은 속담이 이제 좋은걸 찾아야 우리나라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거니까 속담사전 두꺼운걸 가지고 오리를 다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옛날분들이 오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좀 높이 평가하는 속담이 적어요. 오리가 들으면 좀 서운할듯한 속담이 많더라고요 낙동강 오리알이라던지, 오리 제 알에 공 묻은거와 같다.별거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오리발 내민다. 그래서 오리에 대해서 조상들이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리가 사실은 큰 역할을 하거든요 또 외국에서는 대만만 가도 오리알이 달걀보다 비싸요. 그리고 오리고기를 중국만 가도 더 아주 좋은 요리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리가 논에서 모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짐승중에서 훈련을 안해도 되는 짐승은 사람이 어떤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훈련을 안시키는 오리는 짐승은 오리밖에 없다고 알에서 깨서 놓으면은 다 하거든요. 훈련도 전혀 안시켜도 그래 이제 짐승중에 역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주는 짐승 그런데 역축은 다 훈련이 필요한데, 말도 소도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오리는 그냥 알에서 깨가지고 그날에 논에다 넣어도 아주 희희낙락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하거든요 풀도 먹고 벌레도 먹고 그런데 오리걸음이라고 해서 오리가 동작이 느리다고 그러는데 풀잡아 먹는걸 보면 빠른 카메라로 찍어야지 찍혀요. 딱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물에서는 주인이 모이를 주면은 백미터를 숙 쏘쌀같이 오니까 굉장히 빠르단 말입니다. 육지에서 보는걸 보고서 오리 걸음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오리

가 벼를 쓰치면 벼의 감축에 의해서 열매를 잘 벼의 감축이 있는 벼하고 오리의 감축이 없는 벼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나거든요..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소용이 없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동작도 빠르고 알고 보면은 귀한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저 한사람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런 예를 들어서 오리보고 육지에서 이제 백미터 경주를 시키면 그런 교과 시간에 요번 시간은 너희 짐승들 백미터 이걸하라고. 그럼 이제 다람쥐하고 토끼하고 닭하고 오리하고 시합을 시키면은 오리는 틀림없이 과락이거나 불합격일 거예요 아마. 그런 시합을 시키니까 그렇지 다람쥐하고 닭하고 논에서 빠리가는걸 시합을시키면 틀림없이 토끼가 과락이거나 불합격이 될것이 거든요 그 사람의 장점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지 이걸 어떤 그 한가지 기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무리다 싶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점, 창의력, 그걸 발휘시키는 교육을 해야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사람 한사람은 다 위대하다 그런얘기도 하고요. 또 너희들은 다 위대하다 그래야 정말 자기가 그 선생님 격려를 먹고 대학교에 들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사고라는게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 머리에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뇌라고 그러는게 작지만은 피가 뭐 3분의 뭐가 2가 얼마가 모여있고 또 혈관이 있고 뇌 면적을 펼치면은 교실의 몇배 면적이 된대요. 그런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 호르몬이 아주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온대요. 무슨 뇌의 혁명이란 책 있잖아요. 베타 엔돌핀인가 그러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남을 미워하고 나는 틀렸다 절망을 하고 그러면은 무슨 베타 아드레날린이란게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라는게요.. 그게 다 시력까지 다 영향을 준대요 그런데 그 호르몬이니까 그건 뭐 물같은 것일테지 그런게 아니고 그 호르몬이라는 것은 마약의 7배내지 8배의 강력한 영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호르몬, 부정적인 호르몬 그게 일체의 건강과 심리에 끼치는 영향이 크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한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너는 가능성있다 너는 예를 들면은 육지에서는 빨리 못가지만 물에서는 오리같고 그러면은 그게 참 중요하다고.. 위대한 평민이란거는 한사람 한사람이 다 위대할 수가 있다 여기 저 지금 이번시간에 여기 참석을 못한 사람이 주형로 씨라고 동네 여러 가지 일은 부부가 함께 있다고 그런데 그분은 학교에서 뭐 공부를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이제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분 얘기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주 격려를 해줘서 자기가 참 도움을 받았다고 본인이 저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했는데 영어가 전 이십점 맞았다고.. 그런데 이제 지난말로도 이렇게 저 90점 맞은 학생은 잘해봐야 10점 밖에 더 가능성이 없다 20점 맞은사람은 80점 발전성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발전가능성이 많은건줄 착각을 했는지 정말 그랬는지 공부못하면 그렇잖아요. 20점 맞았으니까 아이고 이놈아 하다가도 60점을 맞지 20점이 뭐냐 그럴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달렸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게 좋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불어서는 평민이라던가 학교는 모 어떤 같이 협력해서 해야된다. 저희는 그렇게 학교를 조그맣게 보니

까 지금은 작기 때문에 유리한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는 68년에 학교를 시작했는데 60년도에 일본말 쓰는 것을 그렇게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일본은 아주 골치아픈 동네다 일본은 우리가 반대해야한다.그럴때인데 어차피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일본을 모 번쩍 들어서 태평양에 집어던질 수도 없고 또 일본이 거기 아프리카 같은 나라같으면 우리 도움이 안되지만은 그래도 경쟁대상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알면 우리가 유리하지 가르친다.. 또 중국어도 가르친다.. 배워야 된다 또 는 이제 옛날에는 가사시간이 있었는데 가사라는거는 여학생만 했어요 맞벌이시던데 남자만하고 여자는 직장에서 갔다오고 또 부엌에서 남자 신문만 보고 안된다.. 그래서 이제 남자도 요리해야한다 했어요. 어디서는 교장문제가 좀 뭐 많다고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교장은 뭐 특별한걸 인정하는건 아니고, 또 요새는 교원평가에 대해서 또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교원평가를 이용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면 안되지만은 아니 뭐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고 학부모들이 평가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바탕으로 잘하려고 그러고 뭐 어땠냐 작은 학교에서는 큰 학교에서 문제되는게 거의 해당이 안된다..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학교하고 지역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거는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예를들면 학생들이 빨리 농촌을 빠져나가는게 이제 좋은건가 도시도 나가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초등학교에서라도 뭘하고 싶으냐 농사 짓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예를들어서 아이고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 생명을 가꾸는 그런 농사를 지우니까 얼마나 장한일이냐. 그러니까 아이를 박수를 쳐주자 그런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근데 난 왜 공부도 잘하는데 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느냐 난 참 알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또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배우고 또 지역에서 사는 예를들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모 벌레 그런거는 생물시간에 배울텐데 그건 가만있어요 밖에 나가면 그게 다 움직이는거 아니겠어요. 지역에선 역사가 있고 공해현장이 있고, 사회아픔이 있고, 그 희망이 있고, 그 살아있는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그 지역을 지키고 그것이 품앗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는 그런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통폐합된 학교들이 많은데 여러분 주위에도 다 있을거예요. 그걸 그냥 물려주지 말고 그것은 정신적으로는 동네사람들의 정신적은 재산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역분들이 거기서 어린시절을 보냈고 거기서 많은 추억이 묻어있는 그런 그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정신적인 재산이다 그래서 어떤 그 대안학교 할 때는 그걸 이용하게 하거나 또는 그 동네분들이 통폐합된학교를 생태공원을 만들고 텃밭을 만들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을 연결시키고 학생들이 2박이라도 좋으니까 와서 공동생활을 훈련을 해서 그 남을 배려하는 마음, 자기 책임을 이행하는 마음 같이 협력하는 마음 교과서에서는 배우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현장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광광 못을 박고 그냥 거미줄있는 그런학교를 살리는 길이고 지역에도 그 희망을 살리고 불을 켜는 일이다 모 그런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쪽 아쉬운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화폐라는 것을 좀 살려봤으면 살렸으면 몇 년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에서 일을 하는 대가로 그
 지역 돈을 쓴다 또 농산물을 교환을 한다. 학생들이 주말에 가서 일을 할 때 그 아
 르바이트 할 때는 지역에서만 통용되고 지역의 발전을 돕는 그런 돈이거든요. 잘하
 면 지역에서 어떤 그 공사를 하는데도 지역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어떤데서는 그 현, 현민이 되면 현민증과 함께 그 지역통화를 쓸 수 있는
 통장을 발급을 합니다. 스위스 같은데는 지역돈만 따로 취급하는 은행 지점망이 전
 국에 있습니다. 증권의 뉴욕 월가에서 쓰는 돈하고 가난한 사람이 빵 사는 돈하고
 그거는 다르다 빵 사는거는 내가 빵만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뉴욕에
 서 증권이라는거는 자기가 어떻게 투자하고 빼내가지고 순식간에 돈을 모으는거니
 까 그거는 원래 돈의 가치나 이렇게 다르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지
 기 전에.. 그래. 또는 이제 최근 도서관도 필요하고 지역에는 노인들이 뭔가 유기
 농 일을 하면서 그 그런 농장도 필요하고 장애자들을 위한 그런 그 집에서 통근하
 면서 유기농 채원을 가꾸고 거기서 뭔가 자기 생계도 꿈꾸게 되고 그것을 식당 같
 은데서 팔아주고 이런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이 돈에만 얽매이지 않고 인간
 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저 말하자면 농민들이 농업의 주체지 농민
 들의 인간성 인간됨 그게 추진돼야 농업도 농촌도 그 발전하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
 하는데요. 장애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지역에서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
 든요 동등해가지고 또 뭘해야되는 또 모 지역의 경치를 좋게하기 위해서 지역분들
 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 길가에다 뭘 심는다 길가에다 인도를 설치한다 길가에다
 과일을 심는다. 또는 개울가에다 꽃을 심는다 또 이것도 지역을 아름답게 하는 일
 인데 그걸 다 해야된다.. 그렇게 해서 모 가고 해두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농
 촌이 농촌은 생산 한가지만이 아니고 인간이 사는 곳 이니까 생산과 가공과 유통과
 문화와 교육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두 협력을 해야 되
 겠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될 것이고 생태를 존중
 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그 농업은 1차산업이었지만 지금은
 6차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2차 가공 3차 서비스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곱하면 6차산업이라고 하는데 농업을 좀 폭넓게 봐야하고 농업을 전업만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분들도 시골에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지
 역에다 토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꼭 전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도시인
 들이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또 사례적으로도 그런 일도 많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겠
 지만 쿠바라든가 러시아, 독일 다 그렇게 하고요. 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농촌문제
 를 풀어나가야겠다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30분
 까지 하라고 말씀을 들어서 이제 4분남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
 은 요새 무슨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책이 나왔어요. 그게 과학자하고 경영전문
 을 하는 분인가 그랬고 또 과학잡지를 편집을 하는 분인데 그 양반이 이 얘길 했어

요.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치려고 합니다. 그 미국에는 요새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에서 평가를 하지요. FTA 추진을 한다 등. 그런데 미국에서 아주 요새 큰 종교가 있다. 지식인일수록 그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얼마 있으면 보수적인 정당도 그 종교에 다 신봉자가 될것이고 그건 뭐 때문에 그건 뭐 틀림없는 그런 그 하나의 종교다. 종교라는 것이 무슨 종교인가 하시겠지만은 세계평화하고 환경 이게 많은 미국사람들에게 점차 하나의 아주 토를 달수 없는 이걸 모 어떻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원칙이 되고 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환경이라는 거는 만민의 휴식처기 때문에 이거는 왜 필요하다던지 설명이 필요없다. 그런데 환경하고 평화는 같은 거다 평화도 모든 사람의 휴식처고 그러면서 저 만일 미국사람들한테 세계평화 환경을 해치지 말자 이게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설명이 필요가 없다 이거는 모 토를 달 필요가없다 그런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어디에 나왔냐 하면은 2015년의 세계라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니까 2015년 예측을 할때는 세계평화나 환경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돼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 경제 무슨 모 환경파괴 양극화 모 이런 소용돌이 속에 있고 20세기의 연장인데 그러나 새로운 질서가 그 가운데 나오고 있다. 환경이나 평화라던가 돌이킬 수 없는 세계의 아주 그 추세다 그걸 모 예측을 하거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환경이라면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설립한 분이 그랬어요. 풀무학교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사과 열매를 따지 말아라. 딸려고만 하지 말고 뿌리를 가꿔라 뿌리가 있어야 사과가. 그래서 이제 농업이라는거는 뿌리를 가꾸는 일이다. 그리고 또 농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커다란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텃밭에서 정성을 들이는 일이다. 그리고 요새는 우리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데 나라보다 먼저 생각할거는 지역이다. 자기의 사는 마을부터 환경도 평화도 있다 그런 생각도 저희는 학교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는 얘기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저 이해해주시고 모 저 제가 설명 못한것은 나눠드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시간 있으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 시간이 많이 가서 질문은 좀 받는 게 좋겠다고 모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할수 있는것은 하겠습니다. 질문은 해주시고요

◎ 3차 교육

가. 강좌일시

2006년 11월 15일(수) - 17일(금)

나. 강좌장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명달리 숲속학교'

다. 참석인원

19명

라. 강사이름 및 강사 약력

프 로 그 램 명	강사 · 안내자 / 소속
명달리 마을 둘러보기	유영민 / 생태산촌만들기모임 사무국장
[강연1] 자립하는 마을을 위한 주민교육과 주민참여	한상열 / 토고미마을 대표
[강연2] 우리 마을의 가치와 의미 찾기 I	고성태 /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이사
[강연3] 우리 마을의 가치와 의미 찾기 II	고성태 /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이사
[강연4] 지속가능한 산촌지역 만들기	김재현 / 생명의숲 사무처장
[강연5] 체험교육 실습 - 자연물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	구춘서 / 인제자연학교 교장(숲해설가)

바.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주민 공동체 조직화와 주민 교육 - “자립하는 마을 공동체”

시 간	15일	16일	17일
08:00 - 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 - 10:00		[강연2] 우리 마을의 가치와 의미 찾기 I	[강연5] 체험교육 실습 - 자연물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
10:00 - 11:00			평가 및 마무리
11:00 - 12:00			
12:00 - 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 14:00		접수	[강연3] 우리 마을의 가치와 의미찾기 II
14:00 - 15:00	오리엔테이션 (통나무이름표만들기)		
15:00 - 16:00	명달리 마을 돌러보기 (명달리 조성 및 운영사례)	휴 식	
16:00 - 17:00		[강연4] 지속가능한 산촌지역 만들기	
17:00 - 18:00			
18:00 - 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 - 20:00	[강연1] 자립하는 마을을 위한 주민교육과 주민참여	생각 나누기	
20:00 - 21:00			
21:00 - 22:00	마음 나누기 (본인 및 마을 소개)	나눔의시간	
22:00 - 23:00	취침		

- 명달리 마을 둘러보기
명달리 마을과 명달리 숲속학교를 둘러본다. 주민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마을 전반의 분위기를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명달리 조성 및 운영사례
명달리가 생태산촌으로 거듭나게 된 조성과정, 명달리 숲속학교(상설자연체험학습장)의 주민 참여 사례 등 주민들 스스로의 역할로 생태산촌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과정을 공유하고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조직화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 [강연1] 자립하는 공동체를 위한 주민교육
마을 스스로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화하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주민을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교육의 방향과 방법, 주민교육의 내용, 주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과정 등을 교육한다.
- [강연2-3] 우리 마을의 가치와 의미 찾기
각 마을의 문화적·생태적인 가치를 찾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을 익힌다.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활용, 문화의 이해와 활용, 생태자원의 이해와 활용 등을 통해 마을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방법, 지역 자원을 조사하는 방법 등 마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체계 등을 교육한다.
마을 고유의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실행이 가능하도록 교육한다. 참여자들 각자 자신의 마을에서 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발표한다.
- [강연4] 지속가능한 산촌지역 만들기
산촌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대안적 공간으로써 그 가치가 상승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촌의 모습을 그려보고 산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 [강연5] 체험교육 실습 - 자연물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
마을의 가치를 발견하고, 마을에서 고유하게 행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 스스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을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도시에서 방문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체험을 위한 실습을 직접 해보는 것으로 마을의 특성을 살린 자연물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본다.

사. 강의원본

- 자료집과 같으며 기조 강연(홍순명 선생님의 ‘지역 속의 학교 만들기’)의 녹취를 첨부함.

지속가능한 산촌지역 만들기

(부제 :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의 방향에 대해서)

김재현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것인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통분모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이라고 해야할까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현재의 지금 농촌지역의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환경부화라든가 지금의 개발 정책만을 가지고는 농산촌에 지속화하고 유지하는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죠. 그리고 지금 농산촌 같은 경우,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정부 정책이라든가 외부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보다 지역 정착력을 두고 특히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그런것들을 지역에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내야하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지역 지역사회로부터 삶의 사회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가 지금 고민해야할 부분이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공공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대부분 지금 명달리도 그렇고 마을 회관이라든가, 센터라든가 공공공간을 만들어나가는거죠.

도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을 굉장히 공공공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죠. 사실 그 만들어가는 과정속에서 시민차별이라든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안되어 있어요.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지점관리자들이 있어서 정부가 그 건물들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단체나 아니면 지역 주민 모임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보장 하는겁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다시 마을로 돌아갈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운영은 만드는 과정속에서 차별도 안되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일일이 관여하는데 있어서도 차별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하나에 엮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더 광역적으로 봐서 광역단위에서 엮어내게 되면, 새로운 직업으로서 안정되게 지원할수 있는 기능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거구요, 그래서 그걸 총칭해서 이야기 하는 게 삶의 질 산업, 삶의 질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방향성은, 21세기형 20세기형, 과거와 현재, 미래를 따로 나눠 봤는데, 지금 같은 지역산업들이 지금 지자체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획일화 되고, 표준화 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성을 잃어버리고, 그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하는 그게 그 반면에 같이 진행하다 느껴온 그 산업들을 만들어내면서 개별화되고 다양화 돼야 겠다. 그다음 규모도 대규모나 장치의 그러한 것들을 뛰어 넘음으로써 지역에서 순환 할수 있는, 순환할 수 있는게 바이오 발생하는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싼값을 추구하려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의 독창적인 가치를 인정 받으면서 비싸게 고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학습형 사회라고 하는데, 학습형의 마을의 구조를 마을뿐만 아니라 광역적으로 지자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마을 독자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거의 어렵습니다. 마음 맞추는 거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정한 것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이 아닐까합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전체를 유지하고 컨트롤하고 재배치하고 하는게 어떻게 하면 군이나 지자체 단위에서 기획과 디자인을 그만큼 잘해나가야 하는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지역문제에서 일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지자체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도, 공무원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확실히 달라요. 자기 지역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구상력이라든가 그걸 추진한다든가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든가 하는게 확실히 달라요. 우리도 이제 지자체가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마을회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지역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쉽과 전체상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 속에서 마을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는것이지 마을만의 독자적인 것이 되려면 역시 이것도 개발력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스타가 되던지..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마을이 스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 지금은 토고미나 스타 마을은 돌아가요. 어찌됐든 간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소득도 상당히 높아지고.. 지난번에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5천만원, 평균 소득이. 어지간한 스타마을도 3천만원인데, 농촌에서 3천만원하고 도시에서 3천만원은 다르죠. 두배정도 가치는 있다고 봐요. 평균 소득이..

지금이제 추진 방식을 마을만들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추진방식에서 몇가지 있지만은 대여섯가지의 그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체상을 그려야 한다는 것. 역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상황을 그리지 않으면, 근데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의 리더만 절대 될 수 없는 거고, 전체 지역 계획 속에서 이 전체상이 그려지고, 그걸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달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을 한, 구상을 한 마을 전체상이 있었는데 한사람이 들어와서 택지개발 한다고 밀어버리고, 이걸 전체상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상이 구상이 되고, 그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어찌든 메카니즘을 만들어 낼 것이냐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열정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이걸 제도화시켜서 일반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든다든가 거기에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정착화시켜야 되는데, 일본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996년엔가 경관에 관한 만든 법률을 보면은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모법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따라서 각 기업별로 만들게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생활환경 보존회에 관해서는, 고배시씨 같은 경

우에는 그걸 4개의 기능부분을 해가지고 생활환경보존에 관한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의지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지역의 어메니티라든가 경관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일반화된 그 어떤 틀을 만들게 된거죠. 거기 까지 가기위해서는 그러한 노력들이 축적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전체상을 그려내고 만들어 내 근데 전체상을 만들때, 항상 주의해야할 점 하나가 딱 이것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방향으로 가야된다라고 는 설정을 하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합의 하에 그러니까 합의 형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바뀌어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목표치를 고정을 시켜버리면 그건 이제 주민참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마스터플랜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마스터플랜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유의점들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컨소시엄 기능을 강화 해야겠다. 일종의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인데..지금 그 행정이 중심이 돼서 코디네이터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중심이 마을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마을이 이렇게 리더가 돼서 이렇게 마을이 주체가 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면을 보게 되면 행정이 실질적인 네트워크 중심이 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표면으로는 이렇게 잘 안 나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근데 나타나서도 안되고 자꾸 마을사람들이 중심이 되게끔 되야만 언젠간 진정한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 다양한 형태의 어떤 컨소시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을과 마을간에도 마을과 도시간에도 일사일촌이라든가 일교일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이 지역에 필요한 예를 들자면 그 폐기물과 관계된거다 그러면은 폐기물처리장도 컨소시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좀 지금은 굉장히 제안적인 어떤 네트워크들이 막 우리나라의 농촌 살림을 산촌 살림을 위해서는 제안적인 네트워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좀더 폭넓은 네트워크가 필요하겠다.. 그다음엔 이제 브랜드의 전략 설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브랜드라는게 지금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브랜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농촌에서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브랜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만들어져요. 브랜드라고 하는게 도시의 기업의 마케팅 하는 것처럼 그 뭐 한상열대표가 산천어 축제라고 얘기하셨을것 같은데.. 하천에.. 그게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토마토 축제 그게 무슨 토마토있어요? 화천에 화천의 토마토 축제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하는 토마토 축제있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브랜드화 하는 것들이 너무 인위적으로 돼버렸거든요 지역의 어떤 그 경제적인 지속성의 근거가 되는거라든가 환경의 지속성 그러니까 지역의 고유자원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치부여를 해서 키울 것인가를 통해서 그게 브랜드화가 되어야하는데 그런 것 없이 브랜드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여튼 브랜드를 그러니까 브랜드의 전략설정하고 관리를 좀 본질적으로 접근하는게 좀 필요하겠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집중적으로 고민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TFT라고하는 뭐 전략기획팀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자원조

사를 통해서 지역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전부 이렇게 발굴하고 그걸 역기도 하고 가치부여도 하고 해서 어떻게 이걸 물건을 브랜드화 시키고 상품화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걸 일차적으로 프로젝트화 시켜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본격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지역의 자원과 사람과의 어떤 만남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그리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다 아시는 얘기고, 다 지금 어느 마을에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근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남을 설정할 것인가를 보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막연하게 감상적으로 펼쳐서는 안되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녹색체험이라던가 농촌관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아쉬우니까 하긴 하는데 정말 굉장히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저런 놈들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야단치고 싶어도 못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불편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자원과 사람이 서로 그 진정한 교류를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고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중심체로서 또 어떤 사회적 기업 이라는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요즘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글로컬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컬이라는게 글로벌하고 로컬이라는 것의 합성어인데 지금 앞의 이제 저희가 얘기를 시작을 한게 어떻게 보면 1992년 이후에서 얘기를 말씀 드렸잖아요 이미 글로벌 컨셉의 틀 속에서 우리는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의 고유성 이라든지 자원 순환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 두개가 결코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어떤 글로벌한 어떤 마켓을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난번의 남해의 다랭이마을에 갔었는데 거기서 자세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외국인들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구요. 지금 그 외국인들이 연간 서울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약 사백만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중에서 약 삼백만명 이상이 서울만 보고 간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서울인거죠 서울이 대한민국이 되는거죠.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 좋은 땅덩어리에서 서울이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라던가 우리것을 보여줄수 있는 여건들이 거의 안돼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회마을이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무리하게 추진을 하게 되면 남해에서 그 독일인 마을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독일인 마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실패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역의 고유성들을 아주 딱 든든하게 잡고 글로벌하게 세계화를 이렇게 끌어 들여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섬이 되어버린거죠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봐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어 지구환경문제 컨셉으로 가봐라. 예를 들어 뒤에서 다시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바이오스 에너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

는 거잖아요 억제하면서 지역사회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이게 결국엔 지역에도 좋아지지만 어떤 지구환경문제에도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이런 지역전략으로 활용하는 것도 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마을을 끌고 갈꺼면 이정도의 큰 목표성을 가지고 가는것도 좋겠다는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또 하나로 정리해논겁니다.

지금 이제 지역산업의 대한 얘기인데 그 참기름 공장인데요 일본의 사례예요. 이번에 참기름 공장인데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이런거다 말씀드리려고 이 지역의 참깨가 고맙습니다. 고만데.. 야마하 제유라고 하는 참기름을 교토에서 3대째 참기름 공장만 하는 아주 유명한 명인이 집인데 이 사람이 교토에서 약 한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마을에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을 지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 참깨도 검정참깨를 하는데 참깨도 아주 그 나마사끼에서 유명한 품질 좋은 참깨를 가져와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한계농지 이런 걸 이용해서 재배를 하게 하고 제배 기술이라던가. 그걸 다 이제 물론 다 구입을 매입을 했던거고 또 그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참깨가 자라는 과정이라던가 마을주민들과 참깨를 통해서 함께하는 과정들을 계속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공장의 참기름을 정제하는 기술이 굉장히 독특한데 물로 자연정제를 하더라고요 참 자연정제를 해서 굉장히 순도가 높게 이렇게 이집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이 있어요. 다른 이렇게 참기름 짠 짜서 두는 게 아니라 정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거죠. 그래서 상당히 고부가가치의 참기름을 생산해낼 수 있고 이 지역의 젊은 사람들을 한 세 명을 이렇게 고용해요 고용해서 지역고용도 발생을 하고 열여섯 농가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다 대여를 해주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데요. 그래서 미얀마에 가지고 가서 계약재배를 해서 수입을 해서 오는데, 이제 이사람 사장이 기름을 짜고 이 짠 깻묵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비누를 만들어요. 비누를 만들어서 굉장히 또 우리 참기름하고 좀 다른 게 좀 투명합니다. 그 우리는 참기름 짜서 엄마표 참기름 짜놓으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데요. 레스토랑 그러니까 공장 바로 앞에 그 참깨를 이용한 요리를 만드는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지역주민들을 전부 모여서 요리강습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회사 운영을 얼마나 더 재밌게 하나면 직원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주면 이 연수를 가서도 전부 참깨하고 관련된 것만 가서 전부 사진을 찍어옵니다. 그러니까 요리의 참깨, 참기름일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홈페이지에 전부 올려놔서 세계의 음식들을 이렇게 나열을 일종의 참기름 참깨의 관련된 문화를 형성을 해버려요. 이 그 공장하나가 지역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 하나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한거죠. 이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회적기업이라는거예요. 이거는 정부보조금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는.. 이게 왜 자립할 수 있느냐. 3대째 쌓아온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이라던가 이런부분은 본사 쪽에서 다 담당을 해줘서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자기네들이 공장을 세워서 지역사회하고만 연결을 시키면 되는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하면 같이 이제 야마다 쪽에서 기술을 좀 받고 또 브랜드도 같이 좀 공유를 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그 글로벌 인거죠 그러면 우리도 서로 인적교류도 하면서 이제 그쪽 축제할 때도 하고 우리 축제할 때 오기도하고 하는 그런 마을 를 하면 한마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채꽃 이제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그 일본같은 경우는 고배지진이 난 95년인가 그러거든요 1995년인가 94년인가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물론 희생자들도 많았지만 그이후로 일본의 자원봉사가 무지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국민들의 자원봉사 정신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민단체가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숲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천개가 넘었어요. 숲만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그 다음에 99년인가 통계에 의하면 상당의 오래된 경제 기획청에 등록된 ngo가 9만개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게 고배지진 이후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인드가 완전히 바뀐거예요. 서로 이렇게 볼런티어 정신을 해야만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 큰 계기가 됐다는거예요. 우리도 그런 어떻게 보면 월드컵이라던가 그런것들이 모멘텀이 되었어야 했는데 사실은 좀 못살게 되는... 그건 분위기거든요 그 분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 것인가 결국은 그냥 놔둬서는 안돼요. 일정부분은 끌어당겨야돼요. 거기에서 어떤 가능성들이 보여지면 그걸 끌어내야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ngo라던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세상의 추세가 이 공공기관을 만들어가는 주체세력들의 ngo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생태산촌이 이런 주민리더교육의 장을 만드는 것도 일종의 그런 기능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나노하나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로 큰 호수가 있어요. 기야코라고하는.. 교토하고 시가 있는 사이에 있는 그 제일 큰 호수가 있는데 일종의 일본의 후지산이 심볼인것처럼 기야코도 심볼이죠. 일단 교토가 수도였잖아요 교토의 심볼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그 농약이라던가 생활폐수 때문에 녹조류가 발생하는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그게 1970년대 중반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지역의 주민들이 ngo를 형성을 하면서 기야코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하면은 합성세재를 쓰지 않고 그 천연 비누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평판이 좋아가지고 거의 80퍼센트 정도가 십년정도를 흐르니까 그 합성세재를 이제 안쓰고 그 비누를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쓰게 되거든요 이제 그걸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보급도 하는거를 ngo가 했거든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했냐하면 합성세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더 이상 합성세재를 생산하지 않고 천연세재를 생산하기 시작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비누를 만들어보아야. 장사가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ngo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리더들이 고민을 한거죠. 고민을 해서 독일을 간거죠 독일에 가서 뭘 했냐면 바이오디젤을 보급하려고.. 그러니까 유채꽃을 재배해서 유채꽃 씨 거기서 디젤 연료를 바이오 디젤을 추출을 해서 하는걸 생각을 해서 유채꽃을 심자는 운동을 하면서 여기서 조그만 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전국 네트워크로 퍼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든 현의 지부를 두고 네트워크이 형성되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시작한 운동이 전국의 유채꽃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그걸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이 건물인데 이 건물안에 그 바이오디젤을 사진을 가져왔는데 원리는 일단 유채꽃을 이렇게 해서 양봉도 하고요 수확을 해서 씨앗을 정제를 해서 기름을 짜고 기름찌꺼기는 다시 사료나 퇴비로 이렇게 가는거구요. 이게 식용유가 여기서 그 식용유나 바이오 디젤은 이렇게 쓰고 식용유가 나오게 되면 식용유를 다시 쓰고 회수해서 이걸 다시 정제처리를 합니다. 정제처리를 해서 그걸 또 다시 그 바이오디젤로 디젤엔진으로 연료로 해서 다시 이제 지역 내에 공용차라던가 그걸로 활용을 하고 다시 순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낸 겁니다. 지금 이게 폐식용유를 수집해가지고 그 연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이오디젤 연료를 만들어 내는건데 이 기계를 만드는 특허를 마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마을에 투자하다보니까 계속 개선이 돼서 이 기계에 대한 특허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공이 쌓이면 사실 못할 짓이 없는거죠. 그리고 여기 이게 유채씨, 유채씨앗인데요. 요걸 그 짜고 난 다음에 그걸 솥으로 만들어 가지고 토양 개량질로써 활용을 하는데 되게 싸요. 백미터짜리에 육백엔 육백엔이면 오천원 육천원정도 하는데, 이정도면 싼거 아니에요. 우리가격으로 하면 거의 무료로 공급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고용이 상당히 발생한다는거예요. 이걸 유지하는데 물론 관에서 그 이 지역의 관에서 건물을 만들고 만들어 줬지만 이걸 운영하는데는 ngo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연수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해외 연수생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열댓명, 물론이제 그 이 모야 유채꽃 채취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인력을 한계농지를 활용하게 되니까 유용한거죠. 그리고 이게 비누 가루비누 만드는 것도 보여준 거고..실제로 운영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거구요

다음 바로 옆에 아까 이 옆에 붙어있는 것인데 우리 마을만 보통 마을가꾸기 하면 건물 들어서고 판매장을 만들어놓잖아요 대부분 좀 판매장이 허접하잖아요. 콘테이너로 한다던가 좀 허접한데 여기는 판매장이 좀 우아해요 이게 그 메인화면이 아니고 양쪽으로 화면이 하나있는데 여기는 안의 내부를 젊은 여성들이 드라워플라워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끔 되있는건데 여기는 아닌데 심안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허브나라처럼 하는 것인데, 이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도시의 있는 여성들이 여성들을 이렇게 연수를 시킵니다. 연수를 시키는데 한달에 7만엔의 월급을 주고 그 다음의 잠자리를 제공해줍니다.

잡자리를 제공해주는데 일년간 드라이플라워 하는거하고 허브 재배하는 것을 가르쳐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결과를 가져왔냐면 삼분의 일이 정착을 했다는 거 거예요. 도시처녀 한사람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역총각도 한사람도 정착을 하게 되고 그게 그 효과가 의외로 그러니까 열명만 되더라도 젊은사람 열명이.. 또 애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효과라는데 굉장히 몇배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드라이플라워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의 기업이 되는거죠.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걸 급여로 쓰고 일종의 여기도 지금 이제 그 직판장인데 전부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자기이름 다 붙어있습니다. 자기 사진 다 놓게 해서 그 만큼 신뢰가 가겠죠. 만약에 명달리에서 직판장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다 각자 얼굴 파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신뢰를 파는 거져 그러니까 자기 가족으로 이렇게 사진 붙혀놓으면 이걸보고 신뢰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걸 내놓은 사람도 책임 지겠죠 그다음에 다 팔리고 그런 것 들은 여기서 다 가공을 합니다. 여기서 음식을 또 떡을 만들고 그래서 부녀회가 판매를 하고 저희도 여기서 저녁 사가지고 때웠는데 그러니까 직판장도 있고 가공품 판매장도 있고 아까 드라이플라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단지화 됐다 유채꽃 단지 이런식으로 되면 이렇게 지역산업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 산림조합에서하는건데요. 우리나라 산림조합은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뭐냐하면 바이오스 에너지를 할려면은 펠릿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펠릿.. 펠릿이 뭐냐면 나무를 갈아요. 요게 펠릿인데 폐목재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갈면 이렇게 돼요 간 것을 이 과정속에 집어넣게 되면 열과 수증기를 이렇게 중간에 하게 되면 하면서 압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열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증기를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딱딱해 집니다.. 왜 그러냐면 목재안의 니그닌이 분해되면서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사카 산림조합에서..이게 이 파쇄기가 되는데 대개 비싸더라구요. 이게 육천만엔인가 그러니까 육억정도 되는 파쇄기에요. 무지하게 비싼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택지개발하는데서 나오는 뿌리들 있잖아요. 여기보면 온갖 나무들과 잡동이들은 다 들어가,, 이걸 갈아버려요 이걸 갈아서 이게 그 공장인데 그러니까 그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갈아서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는 휴양림이 있어요.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있는데 여기에 온천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을 전부 펠릿으로 전부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진이 있는데요 아래층에 터빈이 있어가지고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발전기에서 전기도 만들고 열전병합을 발전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 절약도 가져오고 또 실내의 난방도 이게 지금 스토브인데요. 스토브도 요만큼 지금 들어있는 양을 넣으면 한 하루에서 이틀정도 땀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한 알씩 툭 떨어지면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작불처럼 이렇게 하루에 몇 번 가서 집어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압축되어있기 때문에 재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거의 완전 연소를 해요.

재가 요만큼 남을 정도의 그래서 우리도 이런 펠릿 정도는 좀 공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역사업으로 지역에너지를 하게 되면.. 지금 노인분들 어느 마을에 가거나 겨울 때는 전부 마을회관에 모이잖아요. 왜 모이냐면은 난방비 때문에, 기름값 아까워서 모이시는거 아니예요. 근데 이거라도 지역에너지로 공급이 되게 되면 저는 이게 지역산업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의 인력이 고용창출이 되겠어요. 나무 수집하는거, 공장 운영하는데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런 그 이 온천이나 휴양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여기 식당도 있어요. 식당도 있는데 여기 몇 명이 고용이 됐냐면 삼십명이 고용됐어요. 그런데 우리 휴양지 보면은 이게 공무원들 서너명 파견 나와서 공익들 아주 바본거예요. 아주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그 활용도가 떨어지게 때문에 사람들을 배치를 못하는거죠. 활용도를 높이면 바깥의 휴양림도 마찬가지로 활용도를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순환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가져가게 될 것인가 모색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지역의 엄청난 일자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한 삼십명 고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그 군 단위에서는 상당한 업체가 될걸요. 이걸 수집하고 가공하는데 수집하는데 한 삼십명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장 운영하는데.. 그러면 한 육십명 정도 고용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거는 정부가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는.. 예를 들어서 아까 파괘기를 사는데 지원을 하는거죠. 지금 이런 이것도 정부 지원사업으로 하는거잖아요. 이런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것들도 지원을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자립할 수있는거죠. 근데 그다음에 판매를 하는거죠. 여기서 나온 자기네들이 아까 그 목욕탕에서만 쓰는게 아니라 판매를 하는거죠 판매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거죠. 그런데 이것의 대한 이자부담만 없어도.. 그러니까 초기시설만 그래서 이게 기업이 되는거죠 그건 운영까지 보조를 해주게 되면, 서비스일때는 그건 보조를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익을 창출하는가운데 운영을 보조해주면 그건 도덕적 해이일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기투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노인을 공양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것은 그건 운영에서 보조를 해줘야하는거죠.

그다음에 ngo가 운용을 하는 아까 그 지구 디자인 스쿨 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도원리도 이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마을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ngo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정 관리제도 것들을 하는데.. 원래 여기는 뭐였냐면은 리조트 개발이죠. 그래서 한 교토부가 한 백 사십 헥타르 정도의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가 관광지로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일본의 삼경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바닷가고 아주 독특한 지역의 풍경이.있어요. 다랭이 논도 있고 후냐야라고하는 배가 1층으로 들어가고 사람이 2층에 타는 배하고 사람이 함께 사는 아주 독특한 경관을 유지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고 리조트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버블이 깨져버린거예요 거품경제가 깨지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거리를 한거죠, 행정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뭘 몇 년간 구상을 했냐면 환경과 관련된 지역자원의 생산과 관련된 실험을 여기서 다 해보자 그래서 모든 ngo들을 끌어 들여가지고 너네들 하고 싶은거 다해보라고 해서 실험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체계화를 시켜보자 해서 금년 8월 6일날 오픈을 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바로 오픈하기 직전이었는데 이 건물에다가 환경교육을 해서 마케팅을 한다는 전부 태양열로 에너지를 공급해요. 기본적으로 태양에너지로 그다음에 냉방은 어떻게 하나면 냉방은 밤의 찬 공기를 모아다가 낮에 내놓는 방식으로 지하에다가 찬 공기를 수집해서 내놓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기 모으는 장치거든요. 그리고 모든게 이게 태양열로 되게 돼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바이오스에너지 발전단계입니다.이 백사십 헥타르 주변의 여기서 나온 산물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 밑에 있는게 터빈이거든요 발전인데요 이게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구요.. 이 발전기를 그걸 써가지고 건물을 이제 파쇄를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발전을 해서 남은 것은 지역으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의 내부인데 지금 태양열에서 그 냉방 아니 밑에 모아놓은 냉방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걸 온방 그러니까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 장치구요 하여튼 여기 같은 경우도 ngo가 운영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은 지자체가 이렇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 일종의 위탁운영하는 방식도 그 지역사회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되냐면 여기 그 침구관리라던가 그 다음에 식당 해가지고 전부 지역주민이 하게 되는데 운영은 ngo가 하지만은 거기까지 뺏어버리면 안되잖아요. 일자리는 이제 지역주민들로 하지만 여기도 한 삼십명정도 고용이 발생해요, 센터를 운영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재밌는게 뭐냐면은 지금 한참 저희가 계약서를 서로 그러니까 관하고 ngo하고 계약서를 쓰는 과정이 있는데 서로 조정을 하는거예요. 어떤걸 조정을 하나면은 겨울철에는 한쪽만 운영을 하자. 운영 하려면은 손님 다 받기 힘들니까 한쪽만 운영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쪽만 운영하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자 이렇게 ngo가 제안을 하니깐 그렇게는 못한다 아 이 건물을 줘서 너희들한테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정도 마케팅 운영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책임지고 적어도 채워내야 되지 않느냐. 한쪽은 내가 양보하겠다 둘중에 한쪽은 양보를 하는데 한쪽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운영을 해라. 대신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평균해서 한 4일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의 영업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ngo소득으로 ngo 소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옛날에 그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다 투자한쪽으로 정부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수익금이 그게 아니라 일정규정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 ngo로 가게 하는 소득 보장을 해주는 ..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계약을 맺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거죠.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얘기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 그 지금은 우리나라의 농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도 그렇지만 시장중심의 현금서비스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 방식의 그 사회정책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공공투자나 공공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운영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거죠. 지금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복지부나, 노동부나 이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 정책에서 어떻게 지역 사회정책으로 컨셉자체를 변화할 것인가..그러니까 지역사회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새로운 공공공간을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안겨주기식 공간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공공공간을 만드는 것이 그 자체가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서비스보장으로의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하는.. 제가 아까 또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은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둘이 있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있다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병안으로 누워계세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돌봐야 되느냐 다섯 식구중에 누가 돌봐야 되느냐 엄마가 돌보죠. 엄마가 돌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 그 고급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을 다녔는데 어느날 직장에서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더 이상 직장을 못나가요 그러면 누가 돈벌이를 해야 되겠어요. 엄마가 돈벌이를 해야죠. 그럼 할아버지는 누가 돌보나요. 알아서 돌아가셔야 돼요? 빨리 일어나시던지 돌아가시던지 둘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애들은 아빠가 소속이 아빠소속의 엄마가 집에 있다가 일자리를 얻는다고 해서 지금 보통 지난번에 안성의료생협에 갔더니 그게 그 서비스 하는 분들이 계세요. 60 좀 넘으시는 아주머니가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받으시는 월급이 칠십만원 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장이에요. 남편은 몸짱 누워계시고 그걸로도저히 약값 총당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해도 아빠의 6~70프로 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받을수도 있죠. 그래서 생활여건도 나빠지게 돼있는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빠져나가겠죠 그럼 교육혜택도 제대로 못 받겠죠 그럼 그 대물림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집안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잘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기회는 평등하지 않아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저희처럼 넉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자체도 부여되지 않는거죠 . 그렇게 되면 또 사회적인 경쟁력이 자기 능력이 부족하기 보다는 주어진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거나 우린 이걸 이정답을 찾아내면 이제 그 해결이 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지후생이 많이 발전해야 한다. 거의 가까운 정답이신데요. 어차피 이사람들이 소득수준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찌됐든 소득보장을 해주는 지금 같으면 소득보장을 영세민으로써 이렇게 해주던지 어떻게든 지원을 했겠죠 . 그러나 그것 갖고고는 영원히 그 굴레속에서 못 벗어나는거죠.. 방법은 뭐냐면 엄마가 일할 수 있게 하면 되죠. 간병인 제도를 뒤서 간병인에 대해

서 국가가 서비스 지원을 해주는거죠 서비스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할아버지를 간병인이 돌보게 되면 엄마가 아빠가 동시에 일을 하기 때문에 엄마도 꾸준히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혹시나 하는 리스크에 상당부분을 채워낼 수가 있겠죠. 그나마 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간병인이 키가 되는데 그 간병인은 그 말하자면 사회적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병인들을 모아서 하게 되면 모아서 그 지역의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게 아까는 에너지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말씀드렸는데 서비스와 관련이 되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공공공간을 만드는 과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이런 그 열악한 너무 열악한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라는게 제일로 크게 신뢰관계에 있잖아요. 유대관계고.. 예를 들면 폐식용유를 수집하는 과정속에서 형성되는 그 네트워크이라는게 굉장히 끈끈한 관계라는 유지가 되는거예요. 지금은 저희는 주로 끈끈한 관계라는 게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심으로 한 끈끈한 관계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같이 변화된 사회속에서 기능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런 공동체로서 밖에 그러니까 공동체의 역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을 해야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사회적 일자리라던가 어떤 사회적 서비스라던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들을 어떻게 이제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순환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런 관계속에서 공동체들을 만들어 내게 되면 그것들이 하나의 큰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로는 진정한 선진국가로 진입을 할 수 있는것이지..지금 경제의 성공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걸 지금 삶이 질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전세계적으로 분석해놓은거 보면 반드시 소득수준하고 삶의 질의 만족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이 라던가 이런것들이 바로 이런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축적을 많이 해야 보이진 않지만 사회적 부를 축적하는 큰 근간이 되고 그걸 인지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그 사회적 일자리라던가 지역사업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거고, 그랬을 때 지역에 어떤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 질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과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앞서가는 이제 우리 주어진 현실속에서는 십년 이십년 앞일지도 모르고 빠르면 5년일지도 모르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 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저도 고민을 완전한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같이 고민해야하는 부분인데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제가 작년에 저희 그 마을가꾸기경진대회 라는 게 있거든요 신론리도 한 번 받으셨잖아요. 장려상 받으셔서가지고 3천만원..장려상 여덟 마을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삼천만원

이쥬 꽤 커요 .우수상이 육천만원 두개 그다음에 대상이 일억줍니다. 상금이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심사위원 했었고 금년에 심사위원장해서 전국마을을 한달동안 금토일 해서 마을 전국을 돌았어요. 돌아다니면서 역시 많이 보니까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한 내용인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어떤 잘나가는 마을들이 있어요 . 다랭이, 토고미, 마을 등 소위 말하면 선수마을이 있어요. 선수마을도 있는데 진짜 가서보면 진짜 배울게 많아요. 배울게 많은데 금년의 대상은 아직 발표하면 안되거든요. 저희만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결제가 최종적으로 결제가 만나서 발표를 하면 안되는데 그 대상받은 마을은 아닌데 고령의 계열 마을가서 굉장히 많이 깨우치게 많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선산김씨 일족들이 사는 양반마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마을에 부인네들이 농약을 한다고 하니까 종손 어른들이 그러니까 종친회 절대 반대를 한다. 특히 아낙네들이 엉덩이를 흔들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 그랬는데 최근에 종손어른이 생각을 좀 바꿔서 가지고 해라 나도 변화겠다 해가지고 이제 에버랜드 가서 서비스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저흰 다 출발하는데..그 아시쥬 에버랜드 가보신분들은 아시쥬? 그런데 그 칠십넘으신 종손어른이 도포자락에 딱 이렇게 앉아계시는데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 할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애길 할려고 하면은 어느 마을에 가나 가장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좋은 자원적 여건이 하나 있구요. 다 그만큼의 가 볼만한 꺼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핵심 리더가 있어요 핵심리더가 그게 좀 그 어느 정도 독재를 하는 리더이건 어찌됐든 리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리더도 저는 이제 한 세가지 형태의 리더들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진짜 독재하는 독재하면서 자기껏 챙기는 리더가 있고 독재하면서 자기껏 안챙기는 리더가 있구요. 그다음에 함께하는 리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재는 안하는데 그래도 리더긴 리더인데 함께하는 리더가 있어요. 근데 지금 까지는 대체로 마을을 돌아보면 두가지 있어요. 독재하는 리더가 있거나 자기껏 챙기는 독재하는 리더가 있거나.. 최근에 와서 금년에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함께하는 리더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핵심 리더쉽에서 이렇게 분산하는 리더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나마 지속성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마을 주민들도 많은 교육이 돼서요. 많은 선진지를 견학해서 이젠 바로 함께하는 리더쉽으로 가도된다. 근데 불과 사오년전만해도 무지막지하게 끌고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앞서가는 마을 중에 굉장히 ..

그래서 이장님도 아까 식사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그만두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정말 좀 물러나시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인것 같아요. 지금 고민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잘 함께하는 리더쉽으로 전환을 하면 그나마 지속성이 단기 기간이긴하지만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단계는 뭐냐.하는거 그거는 그다음단계는 저는 파트너쉽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명달리의 경우 사실 오버를 너무 해버리는데요. 지금 철저히 파트너쉽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동네에서 하는일이 있고 생명의 숲에서 하는일이 있고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모 마을전체일로 보서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반성을 한다면 제가 그 당시 이 생각을 했다면 좀 더 고민을 더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리더들과 함께 하는 리더쉽을 만들어 드리는 걸 일단 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파트너쉽으로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너무 처음부터 파트너쉽으로 가버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러면 마을자체가 자립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은 그부분이 명달리 되어 하지 않느냐. .. 다음단계는 분명히 파트너쉽은 맞는데 이 파트너쉽이 이 파트너쉽도 지금 틈틈이 변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사회가 변화하면서 집단중심으로 가요 지금까지는 집단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라던가 단체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단체속소 짓고 이런 중심의 이제 시설들을 만들고 점차 가족 단위로, 개별단위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파트너쉽의 형태도 그러면 달라져야죠. 지금은 마을하고 교외하고 마을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마을하고 기업하고 연결되는 형식이었는데 이제 마을하고 개인하고 가야하는데 개인하고는 갈 수 없는거예요. 그러기에는 마을의 역량이라던가 기반 중간의 뭣하나가 있어야 되는거예요. 이게 바로 파트너쉽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던, 생명의 숲이나 생태산촌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서 기업하고 연결해주고 학교하고 연결하고 다른 마을하고 연결하고 또 개인, 가족들과 연결하고 그게 형성이 됐을 때 여기는 상당한 안정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면 마을간 지역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명달리만 잘살면 안되죠. 주변이 마을들도 함께 서종면 전체가 잘살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합니다. 지역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단위 디자인을 고민하게 되는 거고 지역단위에서 고민하게 되면 지역 컨셉이 나오게 되고 그 컨셉에 맞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거기서 더 본질적인 고민을, 정말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앞의 처음에 전제했던 환경적 지속성을 전제로 한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 지금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일정 부분 경제 지속성도 무시할 수 없는거고 그 과정속에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으니까 사회적 지속성이 만들어지게 되는거고.. 거기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전체가 조화로우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때 진정한 지속가능한 마을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마을들을 돌아다니고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될 그 방향들이 이렇게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 오늘 시간을 갖았습니다.

7. 예산사용 내역서(종합)

항목	지출	집행근거		비고
		교육 일시	세부 내역	입금자명

8. 종합평가

가-1. 수료학생이 작성한 수업평가서

◎ 1차 교육

1. 교육 과정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사	%
실상사 및 마을탐방		15
공동체 복원을 위한 생명운동	도법스님	8
농촌의 현황과 농촌 살리기 방향	이해경	15
친환경적 농촌개발과 퍼머컬처	임경수	54
[여는 마당] 춤명상	박현옥	8

→ 다른 강의에 비해 ‘친환경적 농촌개발과 퍼머컬처’의 숫자가 월등히 높음. 강의 중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내용이었으며 강의 준비와 기술이 뛰어났다고 여겨짐.

2. 다음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용
사례 및 현장 중심의 교육(case study)
마을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의 방법
리더쉽 (자질, 갈등해소 방법)
마을 컨설팅(주민스스로 컨설팅하기)
농산촌의 도농교류체험에 관한 교육
정부 주도의 마을개발 추진에 대한 대안책
마을공동체를 위한 가치관 정립을 돕는 교육
생태마을, 주거 형태, 농촌문화

→ 사례 및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였으며 주민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었음.

3. 참가자들과 주관 단체·강사와 원활한 소통(교육)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선사항)

내 용
강의 시간 축소, 질의 응답 시간 늘리기

토론과 친교 시간 늘리기
주관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
교육생의 교육 여건 개선
체계적인 강사 교습의 부족
교육 대상자의 일치 : 마을에서 직접 활동하는 사람 위주였으면 함.
강사와 이메일을 통한 교류
교재 미리 발송
커뮤니티(온라인) 공간 마련
참가자 명단 공유

4. 이번 교육을 통해 느낀, 지역리더로서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내 용
주민과의 의사소통, 친밀감 형성을 위한 노력
겸손한 자세, 봉사 정신, 적극성
지역 리더로서의 자기 교육, 전문성 강화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연대와 교류, 소비자와의 교류
리더의 가치관과 의식 변환
생태마을의 중요성과 실행 의지
지역의 고유자원(문화자원, 생태자원)에 대해 알기

5. 새로운 마을 공동체 운동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용
주민들간의 신뢰, 화합,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마을의 자치 능력 향상
마을의 주체적인 리더(일꾼) 만들기
인식 및 가치관의 전환 (공동체 의식)
귀농자의 유입 증대
마을의 고유자원 발굴

6. 지리산 산내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드라마생명공동체의 여러 활동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내 용
생태적인 삶
마을 자립 시스템
홍보, 교육의 체계화, 활성화 필요

◎ 2차 교육

1. 교육 과정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사	%	이유
마을 공동체 만들기	주형로	21	- 삶 속의 경험을 쉽고, 감동적으로 전달
지역 속의 학교 만들기	홍순명	16	- 삶의 지표를 제시함. - 풀무학교의 정신, 지역사랑을 느낌.
지역의 길과 숲 만들기	유영민	5	-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으면 함.
농산촌 자연에너지의 순환적 활용	정민철	11	- 마을에 대한 고민(물적,인적)의 시간됨. - 사례설명이 도움이 됨.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보전과 관리	반영운	32	- 경관에 대해 쉽고, 깊게 자각할 수 있게 해줌. - 실제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음 - 마을 사례 사진자료가 많은 도움이 됨.
홍동지역 둘러보기	방인성 외	15	- 현장의 진정성과 열정 발견 - 실질적인 마을 사례를 발견함.

→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보전과 관리에 만족도가 높음. 이론 설명과 함께 미니 워크숍을 진행함. 참가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경관을 직접 파악해볼 수 있도록 마을 지도 그리고 발표하는 등 실제적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

2. 강의 시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내 용
자기의 마을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하였으면 함.
시간이 조금 부족하였음.
참여할 수 있는 강의였으면 함.
대체로 좋았음.
마을공동체 강의와 지역 둘러보기가 연결되었으면 함. 집중적인 스터디가 좋음.
강의 전 참가자의 요구가 파악되어 그 중심으로 강의하였으면 함.

→ 참가자들의 참여의 장이 더욱 많았으면 함. 이론 강의를 넘어 실질적인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함.

3. 강의 외에 교육 과정에서 좋았던 점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내 용
토론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으면 함.
토론진행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함.
토론을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홍동지역 둘러보기를 통해 활동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음.
참가자들이 좀 더 친해질 수 있었으면 함.
식사, 숙박이 좋았으며, 쉬는 시간도 적절해서 좋았음.

4. 충남 홍성 문당리의 마을가꾸기 사례를 통해 느끼는 점은 어떤 것인가요? .

내 용
마을활성화에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음에 감동을 받음.
마을 백년계획을 통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한다는 점.
오랜 시간동안, 계획과 노력속에 발전한 마을.
너무 좋음.
큰 계획 속에 작은 노력들이 좋았음.

5. 2차 교육에 대한 소감을 적어주세요.

내 용
주민들의 합의와 참여가 마을공동체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낌.
또 다른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나를 넘어, 지역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어 좋았음.
마을 리더의 역할, 활동에 대한 강의를 제안함.
마을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됨.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눈 것이 도움이 되었음.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이 더 많이 참여하였으면 함.
한 마을에서 3-4명이 참여하여 마을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면 좋을듯함.

◎ 3차 교육

1. 교육 과정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사	%	이유
명달리 마을 둘러보기	유영민	12	- 공동체 지속성에 대한 고민의 계기가 됨.
자립하는 마을을 위한 주민교육과 주민참여	한상열	12	-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 도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우리 마을의 가치와 의미 찾기	고성태	41	- 다양한 현장사례가 도움이 됨. - 마을의 현실과 갈등해결 방안을 알게 됨. - 생태농업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됨.
지속가능한 산촌지역 만들기	김재현	17.5	- 외국의 실질적인 사례가 도움이 됨. -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민의 계기가 됨.
체험교육 실습 - 자연물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	구춘서	17.5	

→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월등히 높음. .

2. 강의 시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내 용
강의 중 긴질문과 토론은 없었으면 함. 진행자의 역할이 요구됨.
토론시간이 충분했으면 함.
좋았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부족하였음.

→ 강의 중 질문과 토론이 오가는 것을 교육 진행자가 컨트롤해야 함. .

3. 강의 외에 교육 과정에서 좋았던 점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내 용
참가자들과의 친교의 시간이 많아서 좋았음.
맛있는 식사, 숙박이 좋았고 마을에서 선물까지 주셔서 좋았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음.
실제적인 강의를 좋았음.
참가자들이 기본적인 수강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실습교육이 좋았음. 서로 편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 좋았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미흡.

→ 적절한 친교시간, 실질적이고 참여하는 강의를 필요함.

4. 마을 주민의 참여화와 주민 조직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내 용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작은 일부터 서서히 진행해야 함.
교류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음. (예. 상담가)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
개인주의적인 생각은 버리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마을 주민들의 공통적인 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아이템 제시가 필요.
단합

5. 3차 교육에 대한 소감을 적어주세요.

내 용
마을 일꾼 교육 이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인듯 함.
인적교류의 장과 함께 생태적인 삶에 더욱 가깝게 되어 의미있었음.
후속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회적인 많은 교육이 되길 바람.
따뜻하게 맞이해준 관계자와 명달리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좋았으며 많이 배웠음.

가-2. 사업단체 자체 평가서

◎ 1차 교육

1. 준비 과정

(1) 기획 및 강사 섭외

- 기존에 정부기관과 타 단체에서 행해지는 지역 주민 교육과의 차별성을 위해 공동체와 생태마을을 그 주제로 정함. (기획안 참고)
- 기획은 김수환, 윤여진이 기획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주민 리더 교육 전체 기획,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생태공동체운동센터 이근행 국장이 검토함. 1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생명 김인숙 사무국장이 검토를 함.
- 강사 및 진행자 섭외는 김인숙 사무국장이 직접 함.

(2) 홍보

- 공문과 함께 안내문을 만들어 우편발송을 함. (마을 주민이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지 않을 것 같은 판단에서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함)
- 온라인 홍보도 함께 함.
- 온라인 안내문을 만들어 온라인 홍보를 함.
- 우편발송 한 곳 : 정부개발사업 대상 마을 이장, 정부개발사업 대상 마을 해당 지자체, 지역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 컨설팅 업체 등 700여곳 (산촌개발사업 해당 지자체에는 산림청에서 협조 요청 공문 직접 보냄)
- 온라인 홍보 한 곳: 생명의숲 홈페이지 및 회원 뉴스레터, 지역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 컨설팅 업체, 생태산촌만들기모임 임원 및 회원, 시민의신문, 전통마을숲 대상지
- 보도자료는 보내지 못함.

(3) 참가자 모집

-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참가자 모집
- 참가자 모집 기간 : 6월 13일 - 30일. 7월 둘째주까지 참가자 모집함.
- 1차 ~ 3차의 교육을 별도로 생각한 사람도 있으며 3차례 모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3차례 모두의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참가자도 모집함.

- 비 피해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5여명 취소를 하거나 오지 않음.
- 마을 주민 외에도 귀농 예정자, 단체 활동가, 마을 문화조사단 등이 참여함.
- 참가자 모집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지 않았음. 처음 시도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참가자 모집 대상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1차 교육 진행 이후 판단해 보기로 함.

(4) 행사 준비

- 생태산촌만들기모임은 한생명과 직접 연락이 되어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한생명을 통해 생태산촌만들기모임에 문제제기를 함. 실상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교육 내용 또한 인드라망생명공동체와 실상사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관으로 하는 것을 제안함.
- KBS 백년가약의 산내면에서 커뮤니티 공간 건축 지원과 비피해로 인해 한생명 측에서 지역리더교육 진행 준비를 돕는데 어려운 상황 발생함.

2. 진행 과정

(1) 역할분담

- 총괄 진행을 윤여진이 하고, 생각 나누기 시간을 김수환이 담당함. 교육 진행 실무를 박진우가 담당함.
- 생각 나누기 2, 3은 진안에서 마을문화조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환이 담당하였음.
- 마을 탐방 등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한생명에서 많이 도와주었음.

(2) 교육 진행 과정의 적절성

- 토론 시간
- 친교 시간 : 공식적인 친교 시간은 둘째날 밤에 약 3시간 정도 진행됨. 친교 시간을 통해 마을의 상황을 서로 나누는 기회가 되는데 소통의 시간이 부족하였음.
- 교육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3. 강의내용 및 강의 진행 방식의 적절성

(1) 강의 내용의 적절성

-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가치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 주관 단체에서는 3차의 교육 과정으로 구분하였고 1차 교육은 2,3차 교육에 비해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 많이 있음. 하지만 참가자들은 3차의 모든 교육을 1차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음. (2,3차 교육의 내용을 몰랐거나, 계속 참가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강의 내용을 사무국에서 미리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 미리 검토한 후 판단할 수 있는 피드백 과정이 없었음. 강의 내용에 대해 사무국에서 미리 알아야 함.
-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음. 이를 피하기 위해, 전반적이고 추상적인 강의를 줄이고 보다 구체화되고 실행되고 있는 사례 중심의 강의를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강사 중에 일부는 강의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강의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강의 스킬의 부족, 강의 준비의 부족)
- 강의 시간이 강의자의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말고 참가자의 요구사항을 알고 그에 맞추어진 강의를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있음.

(2) 강의 진행 방식의 적절성

- 강의 순서가 교육 첫날에 변동이 생김. 인드라망공동체 역사 등 개괄적인 강의를 먼저 진행되었으면 더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함.
- 강의 시간은 강의당 약 두시간 정도 였는데 추후 질의 응답과 토의의 시간이 대체적으로 부족하였음. 1시간 20-30분 정도를 강의를 하였음. 추후 시간의 50% 강의, 50%는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응답을 넘어서 토론으로 전개되기도 하였음. 이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도 있었음.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 질문 리스트를 받아놓고 중복되는 질의응답 과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4. 참석자 분석

- 총 34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이 셋째날 강의에 참

여함.

- 농산촌 마을 주민이 9명, 귀농 준비자가 3명, 마을문화조사단이 10명, 단체 활동가 등 7명이었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5여명이 총 3일 교육과정 중 2일 정도만 참여하였음.
- 마을문화조사단의 경우, 첫째날 생명의숲과 회의 일정이 있었고 교육의 일환으로 참여하였는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었기에 그렇다고 여겨짐.
- 교육생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또한 귀농인(귀농예정인)과 마을 원주민의 교육 요구 내용이 달라 서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전체 평가

공동체성의 중요성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교육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함. 하지만 각자의 마을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세부 방안들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2-3차 교육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교육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생들이 1차 교육에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였음. 이는 사전에 교육과정에 대해 서로의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준비 과정에 촉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음.

생태산촌만들기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관련 단체와 파트너십으로 함께 준비하였던 과정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함. 피상적인 관계를 떠나 보다 깊은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으며 교육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충분한 의사소통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전제) 추후 이어질 지역운동 네트워크 모임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임.

6. 향후 과제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
- 1차 교육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2-3차 교육, 산촌지역살리기 포럼)

- 생태산촌만들기모임의 추후 역할과 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 필요.

◎ 2차 교육

1. 준비 과정

(1) 기획 및 강사 섭외

- 1차 교육 평가 과정을 통해 강의 개수를 줄이고 보다 현장 사례 중심의, 참여 중심의 교육을 요구받음. 초기 계획에서 강의 개수를 많이 줄임.
- 일정 및 장소 섭외를 위한 1차 답사를 사업 확정 직후 다녀옴. 세부 기획을 위한 2차 답사를 8월 30일-9월 1일에 다녀옴.
- 흥성환경농업교육관에서 흥동지역 둘러보기 일정과 안내자 섭외를 맡아줌. 그 밖의 홍순명, 주형로 님 섭외를 도와줌. [강의4. 자연 에너지의 순환적 활용]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과정 정민철 님이 맡아주시기로 함.
- 토론시간과 친교시간에 강사의 참여를 요청드렸음. 강사 섭외시에는 직접 찾아 뵙고 교육의 의미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공유할 필요 있음.

(2) 홍보

-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함.
- 온라인 홍보 한 곳: 생명의숲 홈페이지 및 회원 뉴스레터, 지역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 컨설팅 업체, 지역생명의숲, 생태산촌만들기모임 임원 및 회원, 시민의신문, 전통마을숲 대상지, 마을 사무장 카페, 마을개발사업 관련 사이트
- 홍보와 참가자 모집이 전반적으로 늦어짐.
- 보도자료 1회 보냄.
- 한겨레신문에 단신으로 실림.(9월 11일 NGO 게시판)
- 라디오 프로그램 '지방시대 915' 인터뷰 진행함 (9월 13일)

(3) 참가자 모집

-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참가자 모집함.
- 참가자 모집 기간 :9월 1일 - 10일

(4) 행사 준비

- 윤여진, 박진우가 함께 준비하고 홍성환경농업교육관 활동가가 자료 제공 등의 도움을 줌.
- 홍성환경농업교육관을 공동주관단체로 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힘. 1차 교육 때는 실상사가 인드라마생명공동체의 공동체운동 실현지이기 때문에 인드라마생명공동체에서 공동주관을 요청하였으나 2차 교육의 경우 교육관 내에서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으며, 공동주관으로 인한 실무 부담을 우려한 측면도 있었다고 여겨짐.

2.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1) 역할분담

- 총괄 진행을 윤여진이 하고, 생각 나누기 시간을 김수환이 담당함. 교육 진행 실무를 박진우가 담당함.
- 흥동지역 둘러보기, 친교시간 준비 등 홍성환경농업교육관에서 도와주었으며 이로 인해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음.

(2) 교육 진행 과정의 적절성

- 시작 시간 : 전국곳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대중교통으로 오기에도 쉽지 않은 위치였기 때문에 시작시간이 한 시간 정도 늦어짐.
- 토론 시간
- 친교 시간 : 공식적인 친교 시간은 둘째날 밤에 약 3시간 정도 진행됨. 친교 시간을 통해 마을의 상황을 서로 나누는 기회가 되는데 소통의 시간이 부족하였음.
- 교육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3) 임원 및 활동가 참여

- 생태산촌만들기모임 임원의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전양 공동대표, 성여경 운영위원, 최석기 운영위원의 참여가 있었음. 임원 및 관련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위한 사전 노력이 필요함.
- 상근활동가 중에는 선우영, 홍순영 간사가 둘째날 오후에 참여함. 활동가의

참여가 높았으면 함.

(4) 지역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 준비 과정을 통해 지역 단체와의 교류의 시작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잘 진행되지 못하였음.
- 하지만 행사 과정을 통해 풀무학교, 흥성환경농업교육관 등의 담당자와 알게 되었음. 주형로 님의 경우 친교시간까지 함께 하여 참가자들과 이야기 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줌.

3. 강의내용 및 강의 진행 방식의 적절성

(1) 강의 내용의 적절성

- 흥동지역 둘러보기의 경우 시간의 비중을 많이 두어 진행하였으며 현장 담당자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현실감있게 진행되었음.
- 흥동지역의 지역공동체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신 주형로 님과 홍순명 님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여겨짐.
- 가치적 측면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을에 가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음.
- [강의 4. 농산촌 자연에너지의 순환적 활용] 의 경우 흥동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연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의 사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자연에너지의 활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큰
- 주관 단체에서는 3차의 교육 과정으로 구분하였고 1차 교육은 2,3차 교육에 비해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 많이 있음. 하지만 참가자들은 3차의 모든 교육을 1차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음. (2,3차 교육의 내용을 몰랐거나, 계속 참가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강의 시간이 강의자의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말고 참가자의 요구사항을 알고 그에 맞추어진 강의를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있음.

(2) 강의 진행 방식의 적절성

- 강의 시간은 강의당 약 두시간 정도 였는데 시간을 딱 채워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었음. 그 분의 경우, 저녁 생각나누기 시간에 함께 참여함으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였음.

4. 참석자 분석

- 1차 교육의 경우 휴가철이었으나 이번 교육은 농작물 수확기와 맞물려 30명의 참가자 확보가 어려웠음.
- 1차 교육에 비해 지역의 마을 주민이 모집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마을개발 사업을 준비·실행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참석 비율이 높았음.
- 1차 교육 참가자 중 4명만이 2차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총 20명이 참여함.

5. 전체 평가

홍성 문당리라는 마을이 갖고 있는 요소들로 인해 전반적인 교육의 만족도는 높았음. 마을을 보다 심도있게 둘러보고 구체화된 마을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들도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판단함.

마지막날 강의의 경우, 이론강의와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후 교육과정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가을 농번기 때라서 참석자를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참가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3차 교육

1. 준비 과정

(1) 기획 및 강사 섭외

- 1,2차 교육 평가 과정을 통해 이론 강의를 줄이고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기획함.
- 마지막 교육으로써, 1-2차 교육이 마을공동체 살리기를 위한 마인드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진 반면 3차 교육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계획하였음.

(2) 홍보

-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함.
- 온라인 홍보 한 곳: 생명의숲 홈페이지 및 회원 뉴스레터, 지역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 컨설팅 업체, 지역생명의숲, 생태산촌만들기모임 임원 및 회원, 시민의신문, 전통마을숲 대상지, 마을 사무장 카페, 마을개발사업 관련 사이트
- 홍보와 참가자 모집이 전반적으로 늦어짐.
- 보도자료 1회 보냄.

(3) 참가자 모집

-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참가자 모집함.
- 참가자 모집 기간 : 10월 27일 - 11월 12일

(4) 지역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 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 라는 양평의 체험 관광을 이끌어가는 단체와 교육의 취지를 공유하고 연대를 제안함.
- 추후 양평의 지역운동 관련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함. .

2.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1) 역할분담

- 총괄 진행을 윤여진이 하고, 생각 나누기 시간을 유윤식이 담당함. 교육 진행 실무를 박진우가 담당함.

(2) 교육 진행 과정의 적절성

- 토론 시간 : 첫째날 마음나누기 시간에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짐. 둘째날 토론시간의 경우 시간의 부족으로 많은 시간 함께 하지 못하였음.
- 친교 시간 : 공식적인 친교 시간은 둘째날 밤에 약 3시간 정도 진행됨. 친교 시간을 통해 마을의 상황을 서로 나누는 기회가 되는데 소통의 시간이 부족하였음.

(3) 임원 및 활동가 참여

- 신입상근활동가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역문제에 대해 생동감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3. 강의내용 및 강의 진행 방식의 적절성

(1) 강의 내용의 적절성

- 3차 교육의 주제는 주민 참여와 주민 조직화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것을 강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음.
- 교육 장소였던 경기도 양평 명달리의 경우, 1-2차처럼 꽤 유명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 장소에 대한 메리트는 약하였음.
- 우리 마을의 가치와 의미 찾기를 워크숍 형식으로 갖고 가려고 계획하였고 시간 배분도 넉넉히 하였음. 참가자의 마을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다른 마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줌.

(2) 강의 진행 방식의 적절성

- 교육 진행자의 역할 : 강의 중간에 질문을 하고, 질문이 토론이 되어버림으로써 강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진행자의 보다 적극적인 판단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됨.

4. 참석자 분석

- 양평 인근의 마을 주민이 참여하였음.
- 마을의 주민과 시민단체, 업체의 활동가가 주로 참여함.

5. 전체 평가

주민리더교육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과 네트워크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변경하여 진행하였음.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되었지만 그러한 이유로 참가자간의 네트워크와 소통은 더욱 원활하였음.

3차 교육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후속만남과 교류를 위한 담당자를 정함.

나. 종합적인 사업평가서

정부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리더교육과의 차별성을 갖고 진행을 하기 위해 교육을 기획하였음. 마을을 생태적으로 가꿔가고 마을의 공동체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잘 가꿔진 문당리와 생명운동과 귀농인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모색하고 있는 실상사에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론교육이 아니라 현장의 살아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하여 교육 장소 마을을 깊게 알 수 있는 마을 탐방과 마을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일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선명하게 알게 된 것은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인 것이다. 교육의 주체는 주최측이고 피교육자는 농산촌의 마을 주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참가자들은 농산촌의 삶의 터전에서 주최측보다 더 많은 현장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다.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쌍방향적인 교육, 즉 참가자들의 교육의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가자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강의 형태의 이론교육보다는 현장교육과 토론의 장을 넓히고 워크숍 형식을 갖추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겨진다.

동일한 참가자가 1-3차 교육을 다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획하였지만 막상 3차의 교육을 다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교육 기간도 두 달 텀으로 떨어져 있었고 농번기를 피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바쁜 농산촌 주민들이 많이 있었다. 타 단체와 기관의 지역리더교육 사례를 모니터링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은 처음 하여 이에 대한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였다. 참가자의 기준을 마을 주민으로만 한정시켜야 할지 아니면 단체활동가가 귀농희망자도 적절한지, 참가비를 받아야 할지, 1-3차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참가자가 얼마만큼 있을지 등 여러 측면에서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없이 열어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의 니즈와 목적이 다양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반면, 집중할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 추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구체화된 대상으로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논의를 하고 알고 있는 몇몇의 지역현장활동가의 도움을 구하였으나 기획과 실행 모두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다. 추후, 교육 기획 과정에서는 현장 활동가, 지역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을 모아 그 논의 체계에서 보다 깊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보다 의미있는 교육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교육을 통해 60여명의 마을주민, 현장활동가, 귀농준비자 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들간의 네트워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요구된다.

9. 강의 수료자들의 추후 활동계획

- 1~3차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워크숍을 하려고 하며 (2월 중) 어떠한 지속성을 갖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의 대화를 통해 풀어가려고 함.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 (1월 말-2월 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예정)

10. 기타 제출 자료

회의 및 의견 자료

일시	4월 21일 (금)	장소	생태산촌만들기모임 사무국
참석인원/ 참석명단	김의경, 경규남, 김수환, 김재현, 김진희, 민병건, 반기민, 장우환, 유명민, 윤여진 (10명)		
논의(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자 선정이 중요함. 기존 정부의 마을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마을의 리더가 대상자이나 추후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을에서도 참여할 수 있음. 농림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농촌 사무장 혹은 농촌종합개발사업 대상 마을의 리더 조직과 연계할 수도 있음. 교육 예상 대상자를 리스트업하고 적절한 대상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 타 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중요함. 교육의 큰 방향인 공동체성임. ○ 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강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현재 계획되어 있는 6,8,10월은 농산촌에서 바쁜 시기임. 교육 일시를 한달씩 늦추는 것(7,9,11월)을 제안함. ○ 지역 리더 교육과 산촌지역 살리기 3,5차 포럼의 시기와 장소가 일치하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기로 함. 		

일시	8월 25일	장소	명달리 숲속학교(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소재)
참석인원/ 참석명단	전양, 김의경, 경규남, 김수환, 민병건, 반기민, 성여경, 양홍관, 유명현, 전재경, 최석기, 최경영, 윤여진, 박진우, 유명민 (15명)		
논의(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교육을 시행하였음. 교육 진행지가 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이 활발한 곳이기 마을의 사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한 사전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기획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함. ○ ‘교육’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짐. ○ 강사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강사와 참가자 상호간의 소통이 있어야 함. 활발한 논의의 장과 참여를 통해 의미를 찾아가는 교육방식이 적절하다고 여겨짐. 생태산촌만들기모임은 모임의 자리를 잘 마련해주는 것이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기존의 계획에서 보완 가능한 부분은 보완하여 진행하기로 함 		

<p>일시</p>	<p>1월 7일</p>	<p>장소</p>	<p>전화상, 이메일로의 자문</p>
<p>참석인원/ 참석명단</p>	<p>이근행 (생태공동체운동센터 사무국장)</p>		
<p>논의(교육) 내용</p>	<p>1. 프로그램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이 너무 많다. ○ 참가자들의 마을의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론에서만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도 교육 효과가 높을 수 있다. ○ 토론을 충분히 진행하였으면 하고 지역 둘러보는 시간 또한 충분히 확보하였으면 한다. ○ 오전, 오후, 저녁 당 강좌 하나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강좌와 현장 또는 강좌와 토론이 병행되었으면 한다. 시간을 보다 유연성있게 활용하였으면 한다. 강좌의 내용을 묶어서 강연 수를 줄이도록 한다. ○ 교육을 진행했던 단체(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노하우를 파악해보았으면 한다. <p>2. 참가자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차례 모두 참여한 참가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 참가자의 참여 동기와 원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을 받아본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 지리산 생명연대에서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마을 지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참가 대상자가 일치할 수도 있으니 교육 내용을 공유하고 연계하여 홍보했으면 한다. ○ 귀농운동본부와도 연관성이 있으니 연계하여 홍보했으면 한다. <p>3. 진행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리더 교육 관련하여 기획운영팀(TFT)을 만들 것을 제안함. 관련 단체 혹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며 사무국에서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 기획운영팀이 꾸려진다면 이근행 소장님도 참여할 수 있으며 성여경 소장님도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우선 주요 내용(취지, 일정, 주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참가 신청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 교육을 진행한 단체(예.도농교류센터) 와 협력을 하여 그 루트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